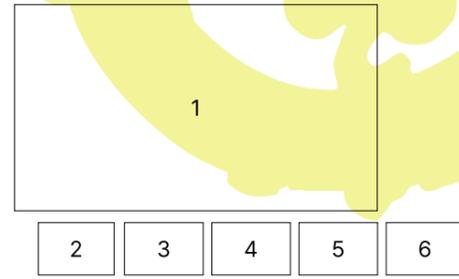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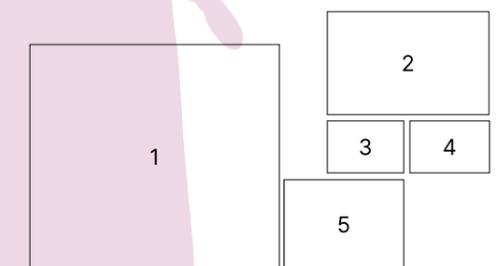
그 발자취와 앞으로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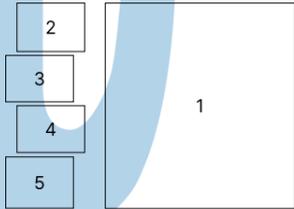


- 1 210917_ 연구원 본원 전경
- 2 040419_ 충남역사문화원 현판식
- 3 050201_ 내포문화권 개발활성화를 위한 첫 심포지움
- 4 060921_ 유물 기증기탁자 초청행사
- 5 060928_ 박물관 개관식
- 6 080318_ 신청사 고사





- 1 191016_ 한마음 화합행사
- 2 071005_ 박물관 1주년 기념행사
(박물관에서 만나는 가을)
- 3 071221_ 태안 유류사고 자원봉사
- 4 081107_ 한마음 다짐 체육대회
- 5 231226_ 화목나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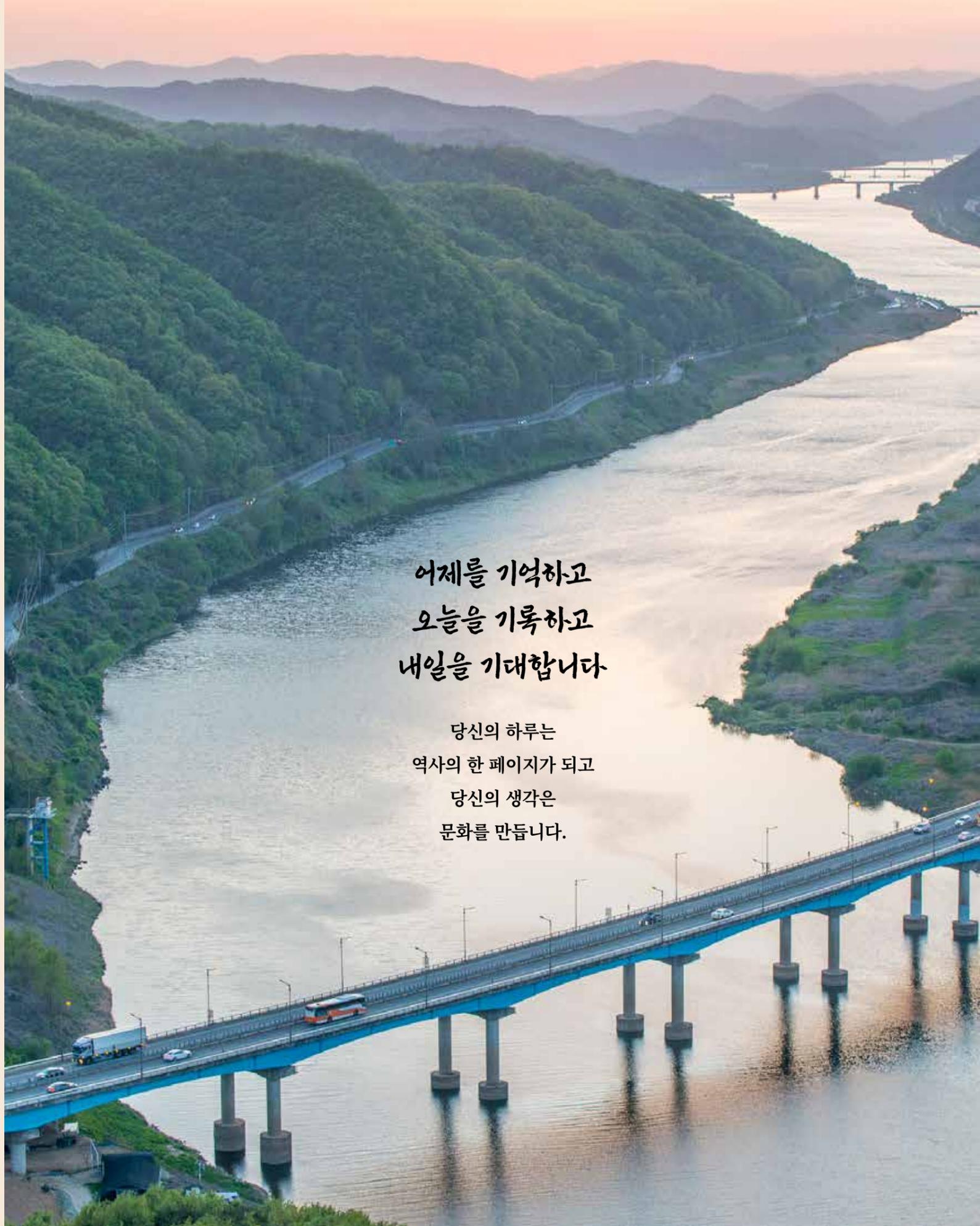


- 1 220401_ 박물관 벚꽃 전경
- 2 061117_ 박물관 탁본인쇄체험
- 3 081011_ 국내 최장 인절미 만들기 (백제문화제)
- 4 121112_ 예산 가야사지 불상 발굴모습
- 5 180507_ 서천읍성 발굴체험



목 차 CONTENTS

	• 발간사 및 축사	10
	• 연구원 소개	14
1부 스무살의 자서전	1. 스물 즈음의 우리	24
	2. 한눈에 보는 20년의 발자취	38
	3. 연구원의 다짐	42
2부 20년간 함께 이루어 낸 우리의 결실	1.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숨을 불어 넣다	46
	2.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다	56
	3. 잠들어있는 문화유산을 깨우다	64
	4. 도민과 함께하는 명품 박물관	74
	5. 내포문화의 가치를 높이다	86
3부 함께 걸어 온 사람들	1. 역대 원장들의 기억	94
	2. 연구원과 함께 했던 사람들	102
	3. 국내외 교류 협력	106
4부 연구원이 꿈꾸는 내일	• 우리가 기대하는 연구원의 내일	116
	• 도민이 바라는 연구원	120
에필로그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의 산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28
	• 개원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회고	130
	• 편찬후기	132
부록	• 발간 도서 20선	136
	• 주요 사업 100선	140
	• 언론보도 및 사회 기여	143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당신의 생각은
문화를 만듭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역사와 전통문화 속에서 충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후, 어느새 2024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란 시간 동안 1,600여 건의 문화유산 조사와 관리, 학술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백제유산을 발굴해 냈고,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 3천여 명을 찾아내 서훈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도 선도했으며, 2022년에는 국내 최초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역사박물관을 개관하여 급속히 멸실·훼손되어 가는 충남 역사자료 3만 8천여 건을 수집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소장유물인 신미통신일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도내 주요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충남의 문화권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개발과 문화관광 산업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포 문화권, 금강문화권에 대한 심화연구 뿐만 아니라, 특히, 충청 유교문화를 특성화하여 2022년에는 한국유교 문화진흥원을 출범시켰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충청남도의 문화유산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옛 사람들은 스무살 청년을 ‘약관(弱冠)’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아직은 약한 편이지만 어른의 상징인 관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조직의 시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이 도전과 배움의 순간이었다면, 이제는 뿌리내린 자리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꽃 피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과거의 유산을 오늘에 되살려 충남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힘센 충남”에 걸맞는 “힘센 연구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충남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
김 낙 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힘찬 비상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지사 김태흠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묵묵히 연구에 정진해오신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연구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도정 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 현안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충남도지』, 『백제문화사대계』, 『내포문화총서』 발간사업과 무령왕릉 이후 최대 성과인 공주 수촌리 고분군 발굴과 충청인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충남역사박물관 개관 등 연구원의 20년 발자취는 도민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충남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입니다. 앞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해 낸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충남의 역사적 자산과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 역사문화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충남 또한 연구원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힘찬 비상을 기원합니다.

2024. 4.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004년 개원한 이래, ‘백제문화사대계’ 발간사업과 같은 체계적인 학술연구는 물론, 충청남도의 중요 유적 조사와 발굴, 유물의 수집과 보존 등 충남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지역문화 발전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충남은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한 한국의 사찰 및 서원, 서해안의 갯벌 등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록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조선통신사기록물인 『신미통신일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이 같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온 연구원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적 상상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문화정책도 더욱 풍부하게 개발하여 여러 기관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산과 잠재 가치를 발굴하는 일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큰 역할을 해주 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원 모든 분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향후 20년도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힘센 연구원”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연구원 소개

이사장

원장

연구실

백제충청학연구부

문화재관리부

문화재연구부

역사박물관

박물관운영부

문화유산교류협력부

경영기획실

경영기획부

재정관리부

내포문화진흥센터

연구실

백제충청학연구부



- 마한~백제시대부터 근·현대시기까지 충남의 역사를 고증하고 백제·내포·금강·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충남 정신문화의 바탕에는 고대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인의 기상과 예술성을 되살려 충남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 충남은 잘 알려진 애국지사 외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이름을 알리지 못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서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찾아내 그 공적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 현대사 속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조사해 현대 충남인의 삶과 기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 곳곳에서 향토의 역사와 사람들을 연구하는 향토연구의 성과를 알리고 향토사대회를 공동개최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부

- 충남 문화유산의 가치를 규명하고,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진흥·육성을 위한 연구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보호기반 조성을 통해 충남의 유산이 도민의 사랑 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충남 고대 역사문화권의 정비를 위한 충남 정책 비전과 방향, 역사문화권별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도사업,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전략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 및 다양한 재난 예방 요인을 분석하는 사전예방적 보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합니다. 충남의 유산이 가진 가치를 되돌아보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재규명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충남의 유산을 만들어 갑니다.

문화재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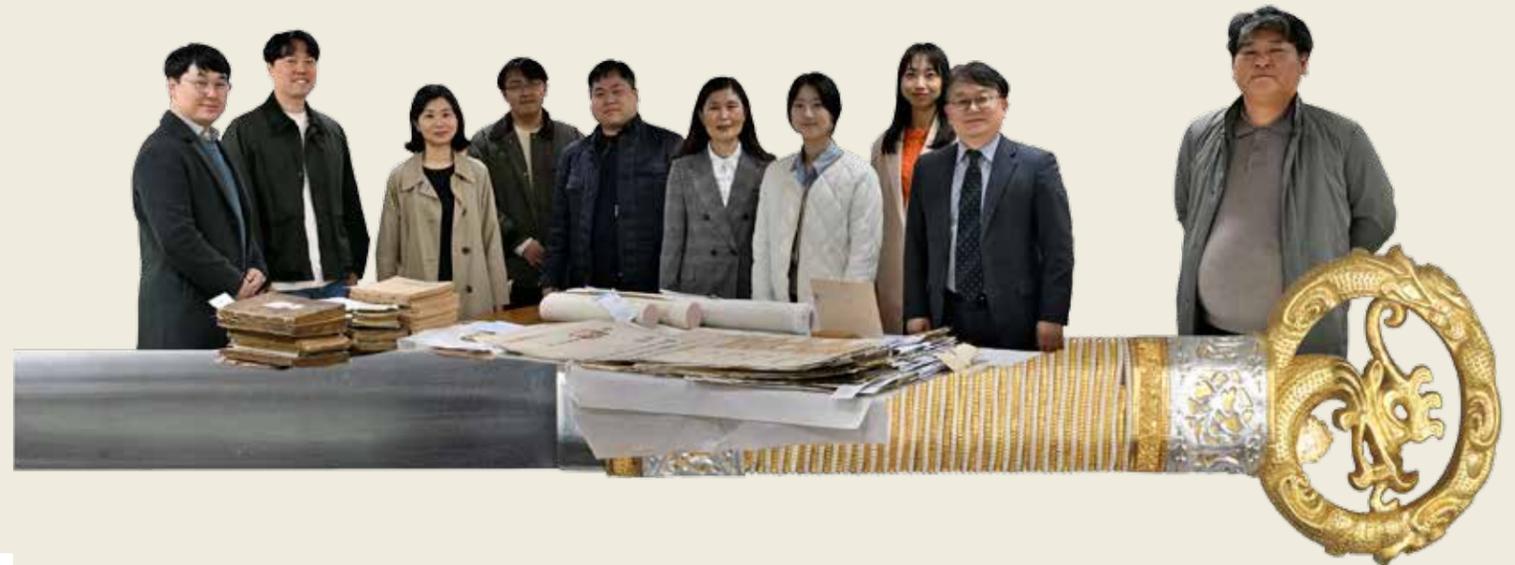
- 충남의 중요 매장유산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매장유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활용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내 매장유산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올바른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가치 제고를 통한 지정 및 승격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역의 중요 문화유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고중에 부합하는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옛 모습 그대로의 문화유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쉽게 접하기 어려운 매장유산을 활용하는 일은 도민과 문화유산이 친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도민에게 알리는 일과 문화유산이 도민과 만나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박물관

박물관운영부

- 오늘날 급격히 멸실·훼손되어가는 충남 역사문화 자료를 적극적으로 조사 수집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충남 문화유산의 전시와 국역서 발간 등을 통해 충남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신미통신일록』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구나 오고 싶고, 여유를 누리며 휴식하고 싶은 박물관이 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교류협력부

- 국내외 반출되어 있는 충남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고 국내외 기관과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백자청화 이기하 묘지’, ‘서울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돈암서원 책판’ 등을 충남으로 반환받아 전시·연구·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반출문화유산에 대한 학술포럼, 아카데미, 특별전 등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

경영기획부

- 지속가능한 연구원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내부부서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킹 구축에 중간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기획·지원하고, 이를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를 통해 꾸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부

- 재정분야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 각 사업분야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 재정규모는 2004년 설립 당시 7,161백만 원에서 2024년 현재 14,556백만 원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 재정관리부는 직원 급여 지급, 경상비 지출, 계약 및 프로젝트 사업별 지출 관리, 법인 결산업무, 세무관리,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재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내포문화진흥센터

- 충남 내포지역은 충청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및 내포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 내포문화진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내포문화진흥센터는 내포문화권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규명하고, 홍보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내포문화진흥포럼을 개최하고, 내포문화권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충남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기록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또한, '충남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적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해미성지를 중심으로 내포지역의 천주교 순례길을 세계 명소화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조상들의 삶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깨워내고 있습니다.

1부

스무살의 자서전

1. 스물 즈음의 우리
2. 한눈에 보는 20년의 발자취
3. 연구원의 다짐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1

스물 즈음의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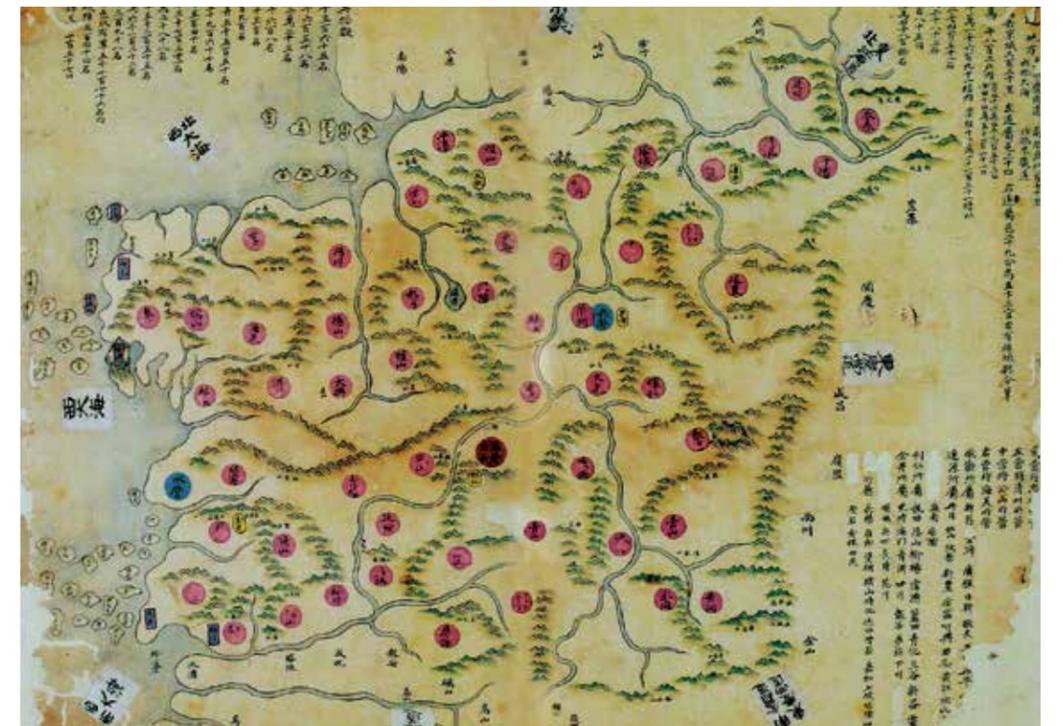


충남인의 정신과 전통의 선양

홍 제 연
백제충청학연구부장

우리나라에서 지역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였다. 88올림픽을 치르며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고, 자기가 살고있는 고장의 향토문화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사회와 문화 정책 전반에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여 그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 처음으로 지역의 역사와 지리, 전통문화 등 인문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울학·부산학·인천학을 정립하고 이를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지역을 특화시켜 나갔다. 충청남도는 1995년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원하면서 충남의 사회 경제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고 1996년에 원내에 충청학연구부를 신설하여 충남의 지역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도내 주요 대학에서도 충청학 연구 조직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조선후기 충청도 지도



비산비아(非山非野)의 살기 좋은 충남 내포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4년에 충남역사문화원을 설립하여 역사와 민속 연구 및 편찬, 문화유산의 발굴과 고증 및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구원 개원 직후 『백제문화사대계』(15권)와 『충청남도지』(25권) 편찬사업을 기획하여 백제문화에 뿌리를 둔 충남의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리, 역사, 민속, 경제, 정치, 현대문화 등 2천년 충남 역사를 총정리 하였다. 이후, 충청학 연구와 관련된 부서는 몇 번의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바뀌기는 했어도, 그 역할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히 충청남도의 출연 사업을 주관하며 도의 문화정책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충남은 차령산맥과 바다, 금강이라는 거대한 자연 환경 속에서 각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그 영향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우리도 모르는 사이 ‘충남사람’이란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이른바 “그 동네 사람들은 이리저리해”라는 식의 지역성이 입혀지게 되었다. 정작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역사와 민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학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백제충청학연구부에서는 충남의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유교문화권, 금강문화권 등 충남의 주요 문화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오늘날의 ‘충청남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도 참으로 다채로운 문화가 전승되어 왔으며 문화를 이어간 사람들의 자취와 오랜 시간 속에서 파생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대의 도시정책 문화관광정책 수립을 위해서다.

백제문화권은 백제 고도(古都)인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논산 청양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고, 내포는 서해와 아산만 삼교천과 연계되어 있는 당진, 아산,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예산, 청양, 서천 등의 시군이다. 또 금강문화권은 금강하구에서 금산까지 이어지는 강 줄기에 위치한 서천, 부여, 청양, 논산, 공주, 세종, 금산에 해당한다. 유교문화권은 영남유학과 비견되는 기호유학 즉 호서유학의 영향권에 있는 충남 일대를 뜻한다. 이러한 문화권 연구는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2000년대 초에 마무리 되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도보존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었지만 충남의 내포신도시 개발로 내포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2007년 논산시에서 시작되어 충남권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에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설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충남은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고도의 문화발전을 이룬 지역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수천년 이 땅을 살아 온 사람들의 자취를 찾고 조명하여 역사를 잊지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고자 한다.



둔암서원에서 열린 기호유교문화 세미나(2011.10.20.)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과 미래가치 창출

노윤석
문화재관리부장

우리나라 문화유산정책은 기존 문화재 체제로부터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변화하는 중요한 기점에 있다. 2024년 5월에 시행될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문화재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발맞추어 충남 문화유산 정책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2001년 충남발전연구원(現 충남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내 문화재연구부로 시작한 문화재관리부는 현재까지 20년 동안 충남 15개 시군 중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중장기 기본계획 등 총 201건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남형 문화재 보존관리분야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분야 법정계획 수립을 통한 道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시군별 문화유산(지정,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하기 위해 충남형 유산관리 연구 및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여 문화재 정기조사, 보호구역 재조정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충남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더 나아가 첨단과학을 적용한 미래연구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4차산업 기술인 3D스캐너, 드론 등을 활용하여 미래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유·무형문화재 복원을 위해 디지털 복제기술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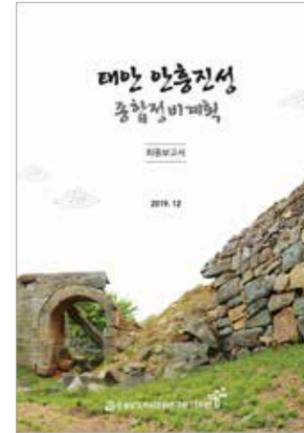
문화재관리부는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충남 문화유산의 세계유산화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연구를 추진하여, ‘조선왕실 가봉태실’에 대한 도의회 의정토론회와 공동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또 충남을 넘어 전국 시도단위 연구 출연기관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7월 경북, 경기, 충남 출연연구기관 간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국 15개 시도 출연기관들의 협의체 구성을 계획 중이다.

이외에 충남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그 성과를 거두었다. ‘공주 공산성’, ‘정지산 백제유적’, ‘공주 수원사지’, ‘서산 부장리 고분군’, ‘서천 봉선리유적’ 등 백제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그 가치를 규명하였고, ‘태안읍성’, ‘서천읍성’, ‘해미읍성’ 등 주요 읍성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그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산 해미읍성 정밀실측 및 구조안전진단사업(4차), 노성산성, 안흥진성 등 다양한 정밀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원형 기록화 및 그와 관련한 인문학적 기록화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충청남도 유산계획 보고서(2017)



태안 안흥진성 종합정비계획(2019)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정책개발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재관리부는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정책 개발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였다.

향후 문화재관리부는 충남 국가유산의 가치를 규명하고,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데이터 관리를 위해 향후 충남의 국가유산 데이터를 생산·수집하고, 국민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또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동시에 주민 생활의 편의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보호기반 조성을 통해 충남의 유산이 도민의 사랑 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관리부는 충남 역사문화권의 정비를 위한 충남 정책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역사문화권별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도사업을 수행하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전략방향 등을 모색할 것이다.

오늘날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유산의 취약성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장차 문화유산이 될 잠재성 있는 비지정 유산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가치 및 보존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3차원 공간정보데이터를 취득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재관리부는 충남의 유산이 가진 가치를 되돌아보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재규명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충남의 유산을 만들어 갈 것이다.



논산 노성산성 정비 조감도



서산 부장리고분군 정비 조감도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및 확대 노력

이창호
문화재연구부장



천안 성거산 위례성 백제시대 목곽고 발굴조사

문화재연구부는 1999년 ‘충남발전연구원(現 충남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센터’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분리·독립되면서 20년 동안 ‘문화재조사팀’→‘고고조사부’→‘문화재연구부’등으로 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수많은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도 내 매장유산의 가치 발굴과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원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충남도 내 1,260여 건의 매장유산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161건의 조사·연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중 조사 결과 중요 매장유산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사적 5건, 보존 5건 등 모두 10여 건을 지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금도 서천 서천읍성, 논산 개태사지, 천안 천흥사지 등 충남도 내 중요 유적에 대한 지정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출토 금동관 (보존처리)

있다.

2000년 마한의 새로운 주거 형태인 ‘토실’이 조사된 공주 장선리 토실유적을 시작으로 하여, 공주 수촌리고분군, 서천 봉선리유적, 서산 부장리고분군, 태안 안흥진성 등 모두 5건을 사적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공주 수촌리고분군은 공주지역 무령왕릉 이후 최대의 발굴 성과로 평가되는 유적이다. 고분군 내에서 금동관과 금동신발, 중국제 자기 등 중요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백제시대 웅진기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천 봉선리유적과 서산 부장리고분군은 백제 시대 지방의 무덤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태안 안흥진성은 조선시대 서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성의 전체 모습이 잘 남아 있다. 특히 성돌에 새겨진 글자를 통해 그 축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공주 수촌리고분군

이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중요 유적과 유구가 확인된 천안 불당동유적, 계룡 입암리유적 등 5건을 보존하여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통사지는 백제시대 웅진기 대표사찰로 많은 매장유산 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존되었지만,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대로 방치되어 아쉬움을 주던 지역을 연구원은 공주시와 협력하여 지역민들 및 방문객들에게 백제 문화와 대통사지를 홍보하기 위한 문화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까지 확대하여 매장유산의 가치 발굴은 물론 활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되고 보존된 대부분의 중요 유적들은 학술적 목적으로 진행된 태안 안흥진성, 대통사지 등을 제외하면, 모두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매장유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공주 장선리 토실유적, 서천 봉선리유적은 고속도로 개설 과정에서, 공주 수촌리고분군, 계룡 입암리유적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서산 부장리고분군, 천안 불당동유적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모두 새롭게 확인된 유적들이다.



홍성 홍주읍성 복문 발굴조사



홍주읍성 복문 발굴 후 복원

이처럼 2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진행된 매장유산 조사·연구의 목적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쳐 왔다. 개원 당시인 2000년 초반기부터 약 10년간은 주로 충청남도내 도로 및 공단 조성을 위한 SOC사업, 행복도시(현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한 매장유산 조사·연구가 진행하여 되었다.

이 후 현재까지 점차 개발사업과 연계한 매장유산 조사에서 도내 중요 매장유산의 학술적인 가치를 높이고, 복원 및 승격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학술적 목적의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로 변화하고 있다. 사적 지정을 위해 금산 백령산성, 논산 개태사지, 서천 서천읍성, 천안 천흥사지 등에 대한 매장

지속적인 가치 발굴과 확대를 위해 공주 수촌리고분군, 논산 노성산성, 홍성 홍주읍성, 태안 안흥진성 등에 대한 연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도 내 자리한 성곽 유적에 대한 정비 및 복원을 통한 역사성 고증과 지역 관광 자원의 개발을 위해 서천 한산읍성, 서천 장암진성, 태안 태안읍성, 서산 해미읍성 등에 대한 조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매장유산 조사를 통해 충청남도 내 자리한 우수한 유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가치를 확대하여 나아가고자 한다.



서산 부장리고분군 발굴조사

충청인의 삶과 일이 스며있는 충남역사박물관

민정희
충남역사박물관장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2004년 개원과 함께 박물관 개관을 위한 ‘전시유물부’를 신설하였다. 도정사료실의 유물을 이관하고 개인과 문중의 소장품을 수집하는 등 2년여의 노력 끝에 2006년 9월 28일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을 개관하였다. 2008년 3월에는 금홍동에 수장고를 신축해 유물을 이전하고, 그해 5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증하는 박물관 학예사 경력인정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옛 국립공주박물관을 리모델링한 충남역사박물관은 개관 이래 조선시대부터 근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충남의 변화와 발전상을 보여주었다. 전시실은 2층 상설전시실과 1층 기획전시실로 구분되었다. 상설전시실은 ① 충남의 역사와 문화 ② 충청감영과 관찰사 ③ 충청과 선비정신의 전통 ④ 충남의 서원 ⑤ 사진으로 보는 충남의 옛 모습 ⑥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유물 등 6개 주제로 나눠 고문서 및 고전적, 근현대 자료 등을 전시하였다. 아울러 상설전시실 내에는 상세한 전시 해설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문화재돋보기’ 공간과 충남의 대표하는 주요 가문의 유물을 순차적으로 전시하는 ‘충남의 명가(名家)’ 공간을 마련하였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지난 18년간 다양한 주제로 모두 46회의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또한 기획전시실은 도내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관람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강연과 공연 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하였다. 2024년 현재 박물관은 개원 20주년에 맞춰 전면적인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후 시설의 개선과 참여 실감콘텐츠 등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박물관은 오늘날 급격히 멸실·훼손되어가는 충남 역사·문화 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그간 여러 종중과 기관, 개인 차원에서 보관해온 소중한 충남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의 향유를 위한 기증·기탁 운동에 매진해온 것은 물론이며, 그간 수집된 문화유산의 정리와 연구, 보존과 복원처리 등을 통해 이들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충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그 가치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전번역서 출간과 교육·영상자료 제작 등 다방면의 활용 사업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박물관에서는 소중한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기탁해 주신 소장자들의 뜻을 선양하고자 매년 기증·기탁자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내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개인과 문중, 민간단체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소장처를 먼저 찾아가서, 선제적으로 유물의 보관 상태를 살피고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찾아가는 유물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의 소장 유물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신미통신일록』, 2008년



충남역사박물관 전경

일본에서 돌아온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 유물, 2022년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 기증받은 ‘백자청화 이기하 묘지’를 비롯하여 총 3만 7천여 점에 이른다. 지난 2022년 10월 연구원으로부터 출범시킨 논산의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그간 정성을 다해 수집한 3만 3천여 점의 유물을 이관한 동시에, 다가올 도립 박물관의 건립 준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유물 수집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역사박물관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벚꽃 명소로, 매년 봄에 열리는 벚꽃문화축제마다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울러 박물관은 단체관광객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박물관교실, 전통문화체험실 운영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박물관 아카데미, 조선통신사 인문한마당, 충청감영역사문화제 등의 개최를 통해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하여 오늘날 박물관은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의 대표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의 고택과 서원 등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인문학 강의와 문화공연을 어우른 기호유교문화 인문학포럼을 필두로 충남의 명가 탐방 답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선도함으로써,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과 2016년에는 연거푸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다.

한편 2010년 ‘충남민속문화의 해’를 기점으로 충청남도가 보유한 전통문화 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과 함께 민속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속상품 개발 등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절의 상징인 ‘성삼문 오동나무’ 보급 운동을 통한 충남 5대 정신 발양 사업, 이몽학의 난과 충청의 얼 관련 방송 다큐멘터리의 제작 등을 통해 대중의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공주 충청감영 역사문화제

최근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지난 2023년 상반기 충남도와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의 MOU 체결을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일본 현지에서 충남도와 일본 시즈오카현의 우호 교류협정 10주년을 기념한 충청남도 문화유산 해외 특별전시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 2회에 걸쳐 충남 연교 조선통신사 관련 일본 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문화유산 기관과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등 충남 문화유산의 빛나는 위상과 소중한 가치를 국내를 넘어 세계로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충남역사박물관은 그간 쌓아온 성과와 경험, 역량과 열정을 바탕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가치를 더하며, 도민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기획·개발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나아가 충남의 빛나는 문화를 세계로 전하는 명품 공립박물관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벚꽃 축제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2

한눈에 보는 20년의 발자취

연구원 시작과 성장

진재근
경영기획부장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여 현대에 재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 기관이다. 충남 역사·문화 분야의 최고의 중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충남역사문화원 현판식

2004년 4월 1일 충청남도 지역 역사와 문화 육성을 위해 충남역사문화원으로 출범하였다. 2006년도에는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을 충남 공주에 개관하여 도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민을 위한 지역의 역사 유산과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7년도엔 연구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남역사문화원에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우리문화유산찾기운동 전개,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 연구 내포문화총서 발간, 충남의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추천 등을 추진하여 2008년 충청남도 경영평가 경영관리 및 고객만족도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2016년 문화재조사연구상 문화재청장상 수상, 2017년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관리 우수기관선정, 한국문화유산협회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모범 우수기관 선정(2022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원은 충남도민 및 지역연구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사 연구단체, 학교, 문화 단체 등과의 다양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총 92개 기관과 학술교류와 관련된 MOU체결 추진하였다.

앞으로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역사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충청남도 지역사 연구의 선두 주자로서 전문성을 높여가며 지역사와 문화에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할 계획이다.

연구원 조직의 변화와 발전

2024	‘발굴현장 공개평가 지역사회 교육 및 관광 기여 공로 우수기관’ 문화재청장 표창
2023	10대 김낙중 원장 취임(2023.08.01. ~ 현재) ‘문화창달기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표창 ‘서천 한산읍성1’ 발굴조사보고서 우수보고서 선정 문화재청장 표창 2023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선정 ISO 37001 국제표준 인증 ISO 45001 국제표준 인증 연구지 『충청학과 충청문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2022	한국문화유산협회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모범 우수기관 선정 내포문화진흥센터 설치 조직 : 2실 1관 1센터 7부 - 연구실(백제충청학연구부, 문화재관리부, 문화재연구부), 역사박물관(박물관운영부, 문화유산교류협력부), 경영기획실(경영기획부, 재정관리부), 내포문화진흥센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준비단(2실, 6부) 연구진흥실(충청국학진흥부, 유교문화진흥부, K-유교연구부), 경영지원실(기획총무부, 재무회계부, 시설관리부)
2021	9대 조한필 원장 취임(2021.07.07. ~ 2023.07.06.) 2021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경영실적 개선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노력’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 조직 : 2실 2관 1센터 9부 - 연구실(백제충청학연구부, 문화재관리부, 문화재연구부), 역사박물관(박물관운영부, 문화유산교류협력부), 경영기획실(경영기획부, 재정관리부), 한국유교문화준비단(연구진흥부, 행정관리부), 내포문화진흥센터
2020	‘충남의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추천’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 선정 공공기관 중 노동자이사제 첫 도입
2019	8대 박병희 원장 취임(2019.07.07. ~ 2021.07.06.) 조직 : 2실 2관 10부 - 연구실(백제충청학연구부, 문화재관리부, 문화재연구부), 역사박물관(박물관운영부, 내포해양연구부), 행정기획관(경영기획부, 재정경리부, 대외협력부), 경영기획실(유교문화준비단)(콘텐츠운영부, 행정관리부)
2018	연구원 연구성과 기념전 개최(도청)

2017	7대 이종수 원장 취임(2017.07.07. ~ 2019.07.06.)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내포문화총서』 1권~12권 편찬 완료 조직 : 2실 1관 6부 1단 - 연구기획부, 연구실(백제충청유교특성화추진단, 역사연구부, 문화재연구부), 박물관(박물관운영부), 행정실(행정지원부, 재정관리부)
2016	‘문화재조사연구상’ 문화재청장 표창 조직 : 2실 6부 1관 - 연구실(지역학연구부, 사료조사부, 백제학연구부, 고고조사부, 역사박물관), 기획행정실(기획조정부, 행정지원부)
2015	6대 장호수 원장 취임(2015.06.08. ~ 2017.06.07.) 충남유교문화권개발 기본계획수립 연구, 문화정책 토론회 개최
2013	5대 이해준 원장 취임(2013.11.01. ~ 2014.12.31.)
2010	『충청남도지』 1권~25권 전권 편찬 완료
2009	2008 충청남도 경영평가 관리 경영 부분 및 고객만족도 전 지표 최우수기관 선정
2008	3대 변평섭 원장 취임(2008.03.25. ~ 2012.07.15.) 국립중앙박물관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선정 금홍동 수장고 신축 및 유물 이전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大백제국의 국제교류사”
200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조직 : 1관 1소 1센터 1처 - 역사박물관(충청학연구부, 전시유물부), 백제사연구소, 문화재센터(문화재연구부, 문화재관리부), 사무처
2006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공주시 국고개길 24)
2005	충청남도 도정사료실 유물 및 자료 이관 대전 충남지역 소규모 발굴 지원단 선정 조직 : 1관 1소 1센터 1처 - 역사박물관(충청학연구부, 전시유물부), 백제사연구소, 문화재센터(문화재연구부, 문화재관리부), 사무처
2004	재)충남역사문화원 개원 1대 정덕기 원장 취임(2004.04.01. ~ 2008.03.24.) 조직 : 1관 1소 1센터 1처 - 역사박물관(충청학연구부, 전시유물부), 백제사연구소, 문화재센터(문화재연구부, 문화재관리부), 사무처
2003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조례 제정, 창립총회



3 연구원의 다짐

과거 사건과 인물의 흐름인 역사, 사람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인 문화. 충청남도에 남아 있는 무령왕릉, 공산성, 사비도성, 마곡사 등의 세계문화유산과 신미통신일록 등의 세계기록유산, 그 밖에도 충청수영성, 보부상, 황도 풍어제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는 우리에게 과거의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업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성취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한민국은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선조들의 흔적을 훼손, 방치하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 소중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충남역사문화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이래 20년동안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고 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과 비전을 가져 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지식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가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그려가는 공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비전

이경복
연구실장

우리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역사로부터 미래를, 함께 여는 문화충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실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 최고의 역사문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과거에 생산된 자료는 물론 현재 생산된 디자인·영상·웹툰·소설 등을 포함한 역사, 전통문화 정보까지 담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대중을 위한 역사문화 정보의 센터인 ‘최첨단 디지털 사고(史庫)’를 기반으로

둘. 고품격 우리만의 역사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충남정신 찾아 우리만의 가치를 세우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들어 누구나 찾고 싶은 우리만의 충남으로 우리만의 명품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충남만의 K-전통문화 콘텐츠를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배우고, 활용하여 누구나 역사와 문화로 맛보고, 읽고, 즐기는 문화로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미래 문화자산으로

셋. 전통 역사를 미래 문화산업으로 연계하겠습니다.

고유한 지역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첨단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적용함으로써 전통 역사를 지역 문화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흥미있는 지역 전통문화는 창의적 콘텐츠·관광과 만나 충남의 미래를 만드는 문화산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충남만의 문화산업은 충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

넷. 지역에서 세계로, 글로벌 문화충남을 구현하겠습니다.

글로벌 문화충남으로 나아가고자 과거 이 땅에서 시작한 문화교류를 다시 일깨워 해상강국 백제 르네상스 프로젝트, 조선 통신사 문화의 길 복원하여 충남을 기점으로한 동아시아 문화루트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교류를 통해 충남만의 K-역사문화 콘텐츠를 충남을 벗어나,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로 알리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2040년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문화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양한 학술조사와 연구,
문화유산의 발굴조사와 관리,
유물의 전시와 복원 등
전반적인 문화유산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20년간 함께 이루어 낸 우리의 결실

1.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숨을 불어 넣다

2.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다

3. 잠들어있는
문화유산을 깨우다

4. 도민과 함께하는
명품 박물관

5. 내포문화의 가치를
높이다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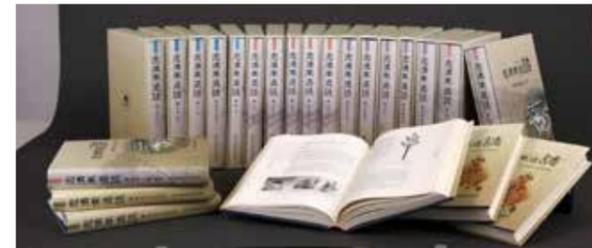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숨을 불어 넣다



역사의 정리와 편찬

홍제연
백제충청학연구부장

예로부터 충청인은 여유롭고 능청스러운 사람들이었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목숨을 바치는 절의 정신이 투철하였으며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충청도 양반’으로 상징되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걸까. 이러한 의문을 아주 명확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백제시대를 넘어 선사시대까지 충남만의 독특한 문화상이 존재하였고, 지역마다 다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지 25권

예컨대 청동기시대의 집터 형태가 어느 곳은 원형이고 어느 곳은 사각형였으며, 고려가 건국될 때 왕건의 편에 들었던 지역과 견훤의 후백제를 지지했던 지역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지역 양반들의 당색에 따라 유교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고 편찬하는 작업은 바로 우리의 실체를 찾는 일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004년 개원 직후 충청남도지 25권과 백제문화사대계를 편찬하였다. 도지(道誌)는 충남의 지리, 역사, 민속, 현대문화, 정치, 행정,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자료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10~2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편찬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시지와 군지를 편찬한다. 연구원에서 주관한 사례만 해도 공주, 논산, 아산, 홍성, 태안, 서천, 계룡, 청양, 금산 등 9개 시군에 이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시군지 ‘향토문화전자대전’도 연구원에서 함께 한 바 있다.

충청남도의회 60년사를 비롯해 충남체육 100년사, 충남 동학농민혁명사, 충남 독립운동사 등 충남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연구 편찬 사업도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읍면동 단위의 작은 지역에 대한 역사편찬 사업도 이어져 읍지와 면지 편찬사업은 지난 20여년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인물,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고증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지역의 역사를 밝히는 작업은 문화정책에 반영되고, 문화산업에 활용되며, 민원을 해결하기도 한다. 계룡시 신도안, 천안삼거리, 천주교 박해 성지, 공주 공산성 등 지역을 상징하는 역사콘텐츠와 역사인물 연구를 통해 기념시설과 전시관 건립 등을 제안하였다.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지정된 문화재를 승격하거나 해당 문화재와 연계된 다른 문화유산의 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지역별 비지정문화재의 전수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멸실 훼손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현황을 파악하고 역사적 가치를 밝혀 보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각 시군에서 향토유적 지정을 통해 기본적인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연구원은 지정 가능한 문화재에 대한 심화 조사 연구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문화재 관련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전문가들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충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는 학술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것도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개인이 경제적 소득 없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초연구에는 공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또한 당장의 수익 없는 연구에 예산을 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기초가 있어야 뿌리가 내려지고 꽃과 열매가 생산되는 법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연구자와 지자체 사이에서 보다 더 효용성 있는 연구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 가능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지 발간 사업을 20년간 지속하여 2023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지로 승격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함께 즐기는 백제문화

최은영
백제충청학연구부

기원전 18년, 온조 집단은 한반도 서남부에 고대 삼국 중 하나인 백제를 건국했다. 4세기 중반 마한의 땅을 통일하고 전성기를 누리던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남하로 도읍인 한성이 함락되자 웅진(공주)으로 천도한다. 이후 538년 백제의 부흥을 위해 성왕이 도움을 다시 사비(부여)로 옮기게 되면서, 충청남도는 고도(古都)인 공주와 부여를 바탕으로 백제문화권의 중심지가 되었다.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연구원이 특성화 사업으로 ‘백제문화권’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추진한 백제사 학술연구는 백제사 기초자료 조사, 학술연구 및 네트워크 확장, 대중화 사업과 세계유산의 조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원 이후 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백제사 연구는 국내외 백제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이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2008년에 완간한 ‘백제문화사대계’를 들 수 있다. 약 3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백제사 관련 자료집성 원문집, 연구총서, 개설서, 고고미술자료집, 역주집 전 2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0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백제 역사·문화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공주 정지산 유적

또한, 해외에서 발견된 백제인들의 흔적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추진 후, 약 4년에 걸쳐 ‘해외 백제문화재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중국과 일본에 소재한 백제와 관련 유적·유물을 총 정리하여 소개한 것으로, ‘중국 출토 백제인 묘지집성’, ‘일본 속의 백제(긴키, 큐슈, 혼슈·시코쿠편)’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백제 관련 유적·유물 자료 현황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료 및 최신 연구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백제사 관련 국외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학술 교류를 이루어지게 되어, 충청남도의 문화적 뿌리인 백제 연구를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밖에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백제문화유산을 조사하여 ‘충청남도의 백제유적’, ‘공주 정지산 유적’



백제문화제 국제학술대회 (2012.10.5 ‘백제 기약과 미마지’)

등 다양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충남의 백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 가능성을 보여주고 정비계획 시 중요한 고증자료로서도 활용된다.

방대한 백제사 기초자료는 2015년 ‘백제문화 아카이브’로 구축·서비스되어, 연구자들뿐 아니라 백제사에 관심이 있는 대중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백제 역사문화 원형 소재를 발굴·연구하여 충남도의 대표적인 역사 축제인 백제문화제 뿐 아니라, ‘웅진백제역사관’, ‘세계유산 공산성 방문자센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등 백제 관련 전시관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연구기관으로서 백제 역사·문화의 실체를 밝히고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국내외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매년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과 협약 후,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백제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학술연구 외에도 연구원에서는 백제의 역사·문화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한권 백제’, ‘공주가 좋다’ 시리즈 등 대중서 발간, 워크북 및 가이드 북 제작, 전시, 북콘서트, 탐방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은 백제의 역사·문화를 알리고, 관광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연구원은 앞으로도 백제 역사문화를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연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한일심포지엄(2009.7.9.)

독립정신의 재조명과 독립운동가 찾기

정을경
백제충청학연구원

20세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충청인의 투쟁사’라고 표현한 언론 기사가 있다(2001년, 월간조선). 충청인은 평소에는 조용한 듯 보여도 국가가 위태롭거나 국권이 유린당하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아는 김좌진, 한용운, 윤봉길, 유관순 등 많은 독립운동가의 고향이 바로 충남이다. 충남의 근대 역사 관련 연구의 시작은 2011년 ‘충남의 독립운동가 사전’의 발간이었다.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 1,017명을 사전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이중 22인을 선별하여 ‘충남을 빛낸 독립운동가’로 선별하였다.



충남의 근대사 연구현황과 활용 학술세미나(2012.6)

독립운동가 사전을 기반으로 충남 각 시군의 특징을 부각하는 지역별 독립운동사 발간 작업도 수행하였다. 2014년 ‘청양의 독립운동사’부터 공주, 논산, 서천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각 지역의 독립운동사는 문화원과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조사표를 만들고, 향후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제안하는 ‘충남 근현대 핵심 유산 기초조사 사업(2015~2016)’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충남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를 정리하는 기초적인 종합조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외에도 김대건 신부 유숙성지 관광활성화, 아산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 청양지역 의병활동, 당진 승전목전투지, 예산지역 3.1운동, 천안 동학농민혁명,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학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도내 고등학생들과 이동녕 관련 청소년 역사탐방을 수행하는 등 충남지역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2019년 3.1운동 발발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연구원은 충남지역의 근대사를 종합 정리하는 연구사업과 활용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충청남도도 전국에서 2번째로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한 ‘우국충절’의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독립운동에 대한 종합 정리와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된 주제는 ‘충남의 독립운동사’ 백서 발간, ‘충남의 동학혁명사’ 발간, ‘충남의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 등 3개의 사업이었다. ‘충남의 독립운동사’ 백서는 한말 의병부터 광복까지



충남동학역사지도 홈페이지(www.cn1894.com)

근대시기 충남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는 ‘충남 3.1운동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면서, 그동안 충남지역이 백제에 집중되었던 역사 연구를 근현대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향후 충남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이 수행되더라도, 기초 자료로서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과제였다.

다음으로 ‘충남의 동학혁명사’는 충남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국외자료 및 지역 기초자료 DB구축을 통한 개설서와 지역별로 권역을 나누어 맞춤형 지역교재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충남동학역사도’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광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충남 동학농민혁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 정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광자원화와 연계하는 등 우리 충남만의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고 홍보하였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사업은 단연 ‘충남의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였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서훈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연구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보존정책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3.1운동 100주년기념 청소년 역사탐방 ‘석오 이동녕선생의 길을 가다’

2020년 ‘예산군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역별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충남 15개 시군 중 예산을 포함하여 8개 시군의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마무리되었고, 발굴 인원은 총 2,500여 명, 이중 보존부 심사기준에 부합하여 서훈신청을 완료한 인원은 1,460여 명이다.

또한 이를 확대하여 충남 전체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 공적조서 작성을 통한 서훈 신청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사업들을

더욱 확장하여 충남의 독립정신이 대한민국사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뚜렷하게 밝혀 낼 것이다. 연구사업이나 연구의 결과물이 학술적인 결과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환류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원이 목표로 하는 ‘연구의 대중화’, ‘역사문화의 대중화’가 진정으로 실현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중서와 교재 편찬 그리고 콘텐츠 활용으로 충남 알리기

홍제연
백제충청학연구부

조선후기 정조시대의 문장가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은 서화 수집가 김광국(金光國)의 화첩 석농화원(石農畵苑)에 부친 글에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며, 볼 줄 알게 되면 안목이 길러지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이 않으리라.” 라고 하였다. 이 글을 바탕으로 현대의 미술사학자 유홍준이 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명언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문화유산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표현이다.

연구원은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책자와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충남역사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역사총서, 한권백제, 내포문화총서(12권), 금강역사총서(9권), 여성문화사(2권), ‘공주가 좋다’ 이야기 책(4권) 등 쉽게 읽을 수 있을만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내포와 금강역사총서는 각각의 문화권이 가진 역사와 문화적 특수성을 주제별로 상세하게 다루어 정책적 활용도를 높였고, 역사 속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역사속의 충남 여성』은 가족을 사랑으로 보듬고 문중의 살림을 키워낸 여인들, 집안의 가학을 이어받아 뛰어난 글을 남긴 문인, 독립 운동에 목숨을 바친 이름없는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였다.

또, 주제별로 한말의 동학농민혁명을 알려주는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불』 등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도서 편찬 사업도 있었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교재 『태랑이가 알려주는 바다와 함께한 태안 역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편집된 교육 자료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충청남도 역사 이야기』(I·II)를 충남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에 배포하였고, 이후 홍성군, 태안군, 서천군, 금산군 등의 역사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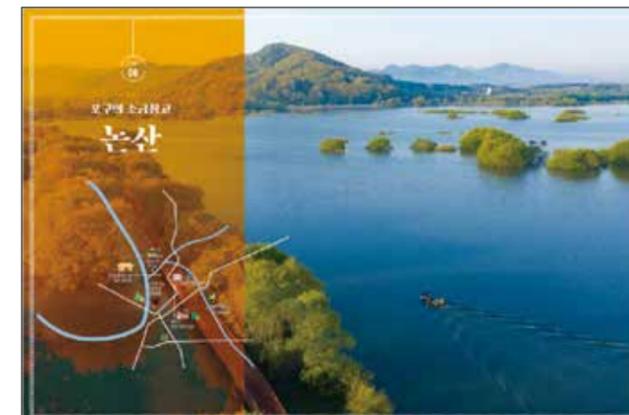
시험 문제에 만나오는데 왜 배워야 하나는 물음에 대해 내가 사는 내 고장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초 단계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답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모두 한국사의 한 페이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더 넓고 깊은 지식의 심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역사문화 원형을 문화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충남 역사문화콘텐츠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4,500여 건의 원형콘텐츠와 160개의 이야기소스를 개발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학술연구사업과 관련 주제에 대한 영상물 제작을 함께 병행하여 멀티미디어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동학농민혁명 안내 홈페이지(“동학여지도”)를 오픈하였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예산을 들여 책을 찍어내는 작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최고의 매개체이고 독서를 통해 가지각색의 상상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안내자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계속해서 글을 짓고 편집하여 모두와 나누고 싶다.



금강문화를 알리는 금강역사총서의 한페이지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大雄殿

2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다

충남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이현성
문화재관리부

문화재 정기조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먼저, 조사 대상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의 종류, 위치, 상태 등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그 후, 조사된 정보를 분석하여 보존이 필요한 문화유산을 식별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손상을 예방하고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화재 정기조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정부 기관,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문화재 정기조사는 사전예방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되어 모든 도지정 문화재를 5년(또는 3년) 주기로 조사하여 보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문화재는 목조·석조·자연·매장·동산문화재로 각각 다양한 유형이 있다. 유형에 맞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가치, 우리의 문화와 고유한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 전시 및 체험을 통한 교육적 가치,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가치,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 정신적 영감을 주는 정신적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동산문화재 정밀조사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유산이 된다. 충청남도 미래유산 연구

손 오 달
문화재관리부

역사는 흐른다. 아니, 역사는 발전한다. 근대 철학은 인류의 역사를 “이성에 의한 진보”로 규정하고 있다. 역사를 거쳐 인류가 더 발전해 왔고, 발전하지 못한 문명은 도태되어 사라져 갔다. 이는 국가나 민족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로 발전해 왔다는 거시적인 관점의 진보성을 전제한다. 지금 우리가 ‘유산(heritage)’으로 인정하는 대상 역시 같은 시각에서 해석된다. 이는 유산 분야의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이라 할 수 있는 ‘세계유산 제도’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유산 제도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준을 “인간의 창의성을 빚어낸 걸작을 대표할 것(등재기준 I)”,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등재기준 III)”,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 중략 … 대표적인 사례일 것(등재기준 IV)”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역사를 거쳐 인류가 발전해 온 중요한 단계를 실증하는 물질 증거를 ‘유산’으로 인정하는 관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대한민국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널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래유산 제도가 대표적이다. 2013년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도시개발 속에서 속절없이 사라져 가는 근현대유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서울에서 도입한 미래유산 제도는 ‘주민의 기억을 도시의 유산으로 보존한다’는 취지하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전주, 파주, 부산, 전남 등이 미래유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가 최초로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2020년 우리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기초자원 조사와 제도 도입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2년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주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역시 같은 취지와 기획에서 공주 시민의 ‘기억’을 담은 유·무형의 소산을 선정하고 이를 기념·활용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23년 12월, 우리나라의 유산 분야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유산 정책의 대 전환을 공포하고, 그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핵심에는 지정·비지정 유산을 망라하는 ‘포괄적 보호’가 있었다. ‘포괄적 보호’는 국가뿐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가 직접 그들이 중요시 하는 유산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그 보존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민 스스로가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가꾸어나가는 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민 참여의 중요성은 공주 미래유산 조사 사업의 경험에서도 절감할 수 있었다. 공주 시민들은 우리 연구진에게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보존해 온 중요한 기억과 유산을 제보해주었다.



공주 미래유산 시민제안 공모전 포스터



충청남도 유산계획 보고서(2017)

그들의 노력 속에서 공주의 기억들과 유산들은 재조명되었고,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 속에서 보존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앞으로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가꾸어 나아가는 충남 미래유산의 저변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다.

충남은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고도의 문화발전을 이룬 지역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수천년 이 땅을 살아온 사람들의 자취를 찾고 조명하여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고자 한다.



공주 미래유산 금학동 수원지

생명의 탄생과 존중의 상징 조선왕실 가봉태실! 세계유산을 꿈꾸다!

김희정
문화재관리부

2023년 10월 서울의 한성백제박물관에는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했다. 모두 조선왕실의 가봉태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목표 아래 하나된 마음으로 모였다. ‘생명탄생문화의 상징, 조선의 가봉태실 세계유산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2년여의 긴 준비 끝에 결실을 맺은 자리라 더 뜻깊은 자리였다. 지역 간 연합을 이끌어낸 행사를 통해 공동의 목소리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금산 태조대왕 태실 전경사진

태실은 인간 삶의 중요한 첫 단계인 생명 탄생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다. 탄생, 성장, 일상, 죽음, 기억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 인간 일생의 시작을 의미하며,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생물학적 삶의 중요한 단계를 상징한다. 태실은 ‘출산’이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공동체가 생명 탄생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문화적 행위의 결과물이다. 이는 공동체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하고, 세대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왕실의 태실은 이러한 인류보편의 문화를 탁월한 경지까지 끌어올린 문화적 산물로서 세계가 함께 기념하기에 충분하다.

저출산과 지역소멸로 국가존립까지 위협받는 현대 한국 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담은 가봉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한 희망과 국가미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봉태실은 단순한 유적이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역사의 지혜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충남지역에는 조선왕실의 가봉태실이 7곳이나 확인된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추존왕과 왕비의 태실까지 포함한 경북의 9곳보다 실제 왕위에 오른 왕들의 가봉태실은 우리 충남이 한 곳 더 많다. 게다가 조선왕조 가봉태실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금산에 태조대왕 태실, 홍성에 순종황제의 태봉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봉태실로서 가장 먼저 국가지정문화재가 된, 가봉태실계의 간판스타라 할 수 있는 서산 명종대왕 태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가봉태실 세계유산 등재에 충남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서산 명종대왕 태실 전경사진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면 같이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한다. 세계유산등재의 길은 여러 선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력이 필요한 길이다. 특히 가봉태실과 같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는 경우 충남을 넘어 많은 지자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조선왕실의 가봉태실의 세계유산등재는 이제 시작점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몇 번째 세계유산이 될지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넘어야 할 높은 산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봉태실은 인류보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세대를 향한 세계유산의 본질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가봉태실 국제학술대회 기념사진

세계유산과 시민! 상생을 고민하다. 국내 최초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산영향평가

김희정
문화재관리부

유네스코(UNESCO)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통해 세계유산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영감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무형문화유산(1989), 세계기록유산(1992)까지 확대하여 인류가 이룩한 문화적 성과를 공유하고 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는 점차 늘어나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고민이 있다. 세계유산등재는 유산과 그 주변을 어디까지 보존하고, 어디까지 개발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는 유산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가 유산의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획단계에서 파악하고, 유산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충남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가 2015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공주, 부여, 익산 등의 8개 유산으로 구성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중에서 공주에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등재되어 있다. 두 유적은 공주 원도심을 구성하는 중요한 장소로 비교적 잘 보존·관리되고 있다.



금강철교와 신축 제2금강교 건설 시뮬레이션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세계유산과 연결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제2금강교 건립 사업은 공산성 성벽에서 불과 수십m 떨어진 곳에서 이뤄지는 교량건설공사로 직관적으로 유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세계유산의 유산영향평가에서 요구되는 여러 평가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국내 여건 상 국가 사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문화재청, 행복도시건설청, 공주시청, 교량설계사는 물론 공주시민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들 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문화재위원회의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역사적, 합리적 근거와 논리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해왔던 연구자의 입장에서 최상위급 난이도를 가진 과제였다고 단언할 수 있다. 아무리 험난한 경험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라고 경험만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공산성에 대한 유산영향평가 이후 유산영향평가의 국내 안착을 위해 많은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저런 모호한 경계에 있는 것들도 많아 속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켜야 할 유산과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개발이 상호 공존하고,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유산영향평가가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북루에서 본 제2금강교 건설 시뮬레이션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3

잠들어있는
문화유산을 깨우다

고고학계 미다스(Midas)의 손

김현일
문화재연구부

고고학계에 “미다스의 손”이 나타났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문화재연구부를 일컫는 말이다. 문화재연구부는 그동안 수많은 중요 유적을 발굴해냈고 그중 네 곳을 사적으로 지정해놓은 성과를 일구어 냈다.

2001년 사적으로 지정된 장선리유적을 시작으로 2005년 공주 수촌리, 2006년 서천 봉선리, 서산 부장리 등 문화재연구부의 행운은 결코 비껴가지 않았다.

2000년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땅을 움푹 파고 들어간 구덩이 30여기가 마치 개미집처럼 떼를 이룬 이른바 ‘토실(土室)’ 유적을 찾아냈다. 이 조사를 시작으로 옛 백제 영역에서는 마한의 ‘토실’ 유적이 연이어 보고되기도 하였다.



2003년 수촌리유적 전경사진

이와 같이 토실 유적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대적 제약으로 인해 그것들이 토실 유적인 줄 모르고 무심코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발굴조사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일깨운 사례였다.

이후 고고학계의 큰 획을 그은 유적, 바로 2003년 11월 중순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백제고분군을 발굴했다. 유적 발굴용 대나무칼을 대는 순간 1971년 무령왕릉 발굴 이후 가장 많은 금동제 유물이 1,500여 년의 어둠을 깨고 세상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서울에 도움을 준 한성백제의 영향력이 당시 공주까지 미쳤다는 새로운 사실과 웅진천도의 중심세력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유물이 더 묻혀있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곳이다.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도 참으로 많다. 바로 ‘백제판 사랑과 영혼의 약속’ 대롱옥으로 만들어진 부절이다. 맨 처음 4호에서 부러진채 확인된 옥은 발굴조사 당시 조사원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왜 부러진 반 쪽만 나올까.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지만 5호분의 발굴조사에서 한쪽 끝이 파손된 대롱옥 한점이 발굴되었고, 혹시나 하는 기대에 4호분의 옥과 맞추어보니 완벽한 한 개로 확인된 것이다. 저 세상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부부의 애절한 징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후 연이어 발굴조사된 서산 부장리고분군의 경우에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호 토광묘



수촌리 고분군 4호 석실분

백제시대 분구묘(墳丘墓)로 알려진 무덤에서 또 하나의 금동관을 찾은 것이다. 서해안의 토착 무덤인 분구묘는 현재까지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조사이다. 이곳에서 찾은 금동관과 수많은 유물을 통해 서산 일대를 통치하던 강력한 지방세력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조사된 공주시 장선리 유적과 서천 봉선리 유적에서도 “우리가 평생에 이만한 유적을 다시 발굴할 수 있을까” 하고 되뇌었다고 한다. 하지만 행운은 더 크게 공주 수촌리와 서산 부장리유적으로 다가왔고 현재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문화재연구부의 또 다른 행운이 어디로 향할지 참으로 궁금하고 기대된다.



대롱옥 세부사진

백제 마한을 담다

정제원
문화재연구부

마한은 삼한 중 가장 강성했던 나라 중 하나로 아직 그 실체와 정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않지만, 우리 역사에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상으로 백제보다 앞서 성립되어 백제와 많은 시기를 공존하다가 백제에 흡수·통합되었으며, 공간 상으로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인 경기남부에서 전라남도에 걸친 지역에 분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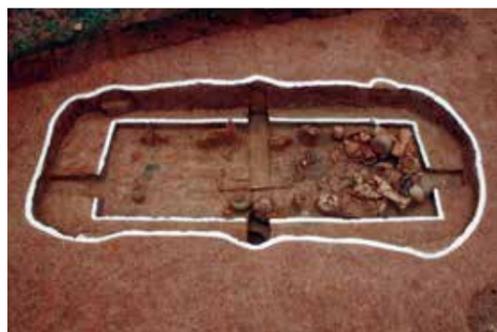


박지므레 유적 전경

마한을 대표하는 분묘의 형태는 토광묘와 주구토광묘로 경사진 산 또는 구릉사면에 입지하며, 매장주체부(시신을 안치하는 공간)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안치하고 제사를 지낸 후 봉토를 씌웠으며, 경사면의 위쪽에 주로 눈썹형의 주구(도랑)를 돌렸다. 추가되는 매장시설은 따로 보이지 않고 출토유물은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 조합이 매우 특징적이다.



주구토광묘 모습



토광묘 모습

마한에 대한 소략한 기록만 확인될 뿐이지만 발굴 조사를 통해 마한의 진면목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문화재연구부에서 2007년~2009년까지 발굴 조사를 실시한 아산 박지므레 유적은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확인된 마한 분묘유적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하며, 인접한 용두리 진터유적까지 포함하면 약 300여기의 분묘가 확인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마한을 대표하는 분묘의 형태는 토광묘와 주구토광묘로 경사진 산 또는 구릉사면에 입지하며, 매장주체부(시신을 안치하는 공간)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안치하고 제사를 지낸 후 봉토를 씌웠으며, 경사면의 위쪽에

마한은 철기의 발달과 보급, 타날문토기로 대표되는 중국 전국(戰國)계 토기제작기술이 유입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마한의 토기는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와 타날문토기(打捺文土器)로 구분된다.



토광묘 및 주구토광묘 출토 토기

그 중 타날문토기는 전국계 토기제작기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박자(拍子)에 의한 타날문의 시문과 회전판의 사용, 굴가마(室窯)의 채용 등이 특징적이다.

타날문토기의 주요기종으로는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 장난형토기, 시루, 동이, 완이 주류를 이루며 고배, 삼족토기 등 한성 백제 양식의 토기가 등장하면서 백제토기로 융합·변화한다.

고대사회 정치체제의 성장과 갈등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 철기는 박지므레유적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철기류는 무기류(환두도, 철모, 철촉, 철도), 농공구류(철부, 철검), 마구류, 기타 철기류로 구별할 수 있으며, 이중 환두도(동근고리칼)는 무기로서의 기능과 피장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능이 동시에 내재한다.

따라서 박지므레 유적에서 확인된 환두도의 변화양상을 통해 무기로서의 기능변화는 물론 사회조직 및 사회변화양상을 추측해 볼 수 있다.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懸頸垂耳 不以金銀繡爲珍’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구슬을 보배로 삼았는데, 옷을 꿰어 장식하고 혹은 목에 걸고 귀에 달았지만 금·은·비단은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한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석은 바로 구슬이다. 이러한 구슬은 재질에 따라 석영을 녹여 만든 유리, 마노·수정·경옥(비취) 등 자연산 보석 등으로 구분된다. 마한의 구슬사탕은 1,700년 전에 쓰여진 삼국지에도 나오며, 박지므레유적에서도 감청색 및 적갈색 유리 환옥과 마노계 구슬이 다량으로 확인되면서 기록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문화재연구부에서 발굴한 박지므레유적은 곡고천이 내려다보이는 구릉지에 입지하고, 토광묘(土壙墓)와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들이 대규모로 발굴된 한반도 중서부지역 최대의 마한시대 분묘유적으로 발굴 조사를 통해 인근 아산 진터유적, 아산 갈매리유적, 아산 북수리유적, 천안 청당동 유적 등과 함께 마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유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마한의 맹주국인 목지국(目支國)과 관련된 유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박지므레유적 출토 구슬장신구

우리 삶 속의 문화유산 가야사와 개태사 발굴이야기

이호경
문화재연구부

1846년 흥선군은 연천에 있던 아버지의 묘를 예산군 상가리로 이장하는 일이 있었다. 영화 '명당'에서 소재로 사용되었던 흥선대원군과 '이대천자지(二代天子之地)'에 관한 내용이다. 예산에 있던 가야사를 불태우고 그 자리에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이장한 이후 고종과 순조를 끝으로 조선의 운명이 다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조선후기 문인 황현이 1864년부터 1910년까지 47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담겨 있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사찰을 불태우고 두 명의 왕을 얻으면 대가 끊긴다는 이야기는 영화속의 설정일지라도 이대천자지의 명당인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흔히 그림에서 보이는 명당의 정형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예산 상가리의 가야사지이다.

이곳에 대한 발굴조사는 많은 호기심과 기대를 앓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정말 가야사를 불태웠던 흔적이 남아있을까? 옛 가야사의 터가 남연군묘 아래 남아있을까? 많은 기대를 품을 수 밖에 없는 역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불에 탄 기와가 발굴현장 전역에서 확인되고 '가야사'라는 절이름이 쓰인 유물들과 불상들을 포함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을 때는 역사는 잠시 덮여있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는 경험이었다.

특히 가야사터가 훼손된 범위에서 남연군묘의 제작시설이 확인되었을 때와, 8구의 불상이 한곳에 파불(破佛)된 모습으로 발굴되었을 때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심마니가 산삼을 찾았을 때와 같은 기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가야사지는 최근까지도 그 거대했던 사찰규모가 계속 조사되고 있고 사찰의 정중앙에 묘가 사용되었던 흔적 역시 확인되어 매천야록의 역사가 현실로 드러났다.



가야사지 불상 발굴



개태(開泰) 명문기와

시간을 거슬러 통일신라가 분열하고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던 그 시절,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태조 왕건은 논산 연산면 일대에서 견훤을 쿠데타로 밀어냈던 후백제의 신검의 항복을 받고서야 후삼국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

936년(태조19) 왕건은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는 사찰을 마지막 전장이었던 연산에 짓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개태사이다. 고려시대 왕실사찰은 많이 있으나 개국사찰로서는 현재 개경에 10개의 사찰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는 개태사가 유일하다. 개태사는 왕건의 공지와 자량을 모두 담은 사찰이자 고려사 내내 국가의 길흉을 점치던 곳으로 계속 거론되는 이른바 고려의 호국사찰이기도 하다.

개태사지는 1989년 첫 발굴이 시작된 이후 2016년까지 6번의 발굴이 진행되면서 길이 52m, 높이 5.5m 규모의 웅장한 석축과 많은 건물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개태(開泰) 절이름이 쓰인 기와와 석탑·석등의 부재들, 그리고 사람 머리만큼 커다란 코(소조상)가 발견되었을 때는 정말 놀랐다. 고려시대 왕실 사찰이어서 그런지 청자편도 20여 자루 정도 분량이 나왔을 정도로 이곳은 정말 보물창고구나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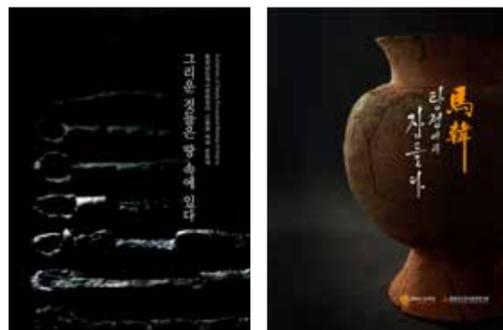
그러나 아직 극히 일부만 열어보았을 뿐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도 못한게 현실이다. 정말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열어보고 싶은 유적이지만 아직 기다려야 한다. 2024년의 현재 8년간 추진했던 개태사의 국가사적 지정이 결실을 맺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사적 개태사지에서 고려 태조 왕건의 공지와 자량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



개태사지 소조상 편 일괄

그리운 것들은 땅 속에 있다!

양수연
문화재연구부



우리 연구원은 1996년 前충남발전연구원 시절부터 현재까지 416개 유적의 발굴(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발굴조사 보고서는 1~165책(2023년 기준)을 발간하였다. 약 20여 년간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은 약 59,000여 점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재질과 기종으로 출토되었다.

대부분의 유물은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어 보관 중이며, 일부 중요 유물은 현재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어 그 가치가

더 크다. 특히 중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그리운 것들은 땅 속에 있다’, ‘마한(馬韓) 탕정에서 잠들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등 꾸준히 특별전을 개최하여 우리 연구원의 발굴 성과를 많은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교육, 체험 활동 등을 통해 발굴 전문기관으로서 역사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재연구부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노력해나갈 것이다.

마한의 영혼, 새모양토기와 구슬

삼한 중 마한은 가장 강성했던 나라 중 하나로, 2006~2008년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아산 탕정 박지므레유적을 통해 마한문화의 진면모가 밝혀졌다. 박지므레 유적은 마한 최대의 분묘 유적으로, 약 166여 기가 확인되었다.

마한의 유물로는 원저단경옥과 심발형토기, 원통형토기, 대부호, 새모양토기 등과 같은 토기류, 환두도, 철모, 철촉 등과 같은 철기류, 이밖에 다양한 구슬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출토된 유물 가운데 새모양토기는 몸통에 약간 튀어나온 머리와 꼬리 부분이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새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영혼의 전달자 또는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곡령신으로서 이러한 새를 형상화하여 제사에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공주 수촌리 금동관모

백제 예술의 진수, 금동관모

고대인들에게 ‘관’은 착용자의 신분을 높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지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별되어 당대 최고 기술이 모두 발휘된 유물이다. 금동관모는 한성기 때 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공주 수촌리 고분군 2점(1호 덧널무덤, 4호 돌방무덤), 서산 부장리 고분군 1점(5-1호 덧널무덤)으로, 총 3점을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굴했다.

금동관모는 금동판 2장을 붙여 고깔형으로 만들었으며, 앞쪽에는 산, 뒤쪽에는 광배 모양의 세움 장식을 부착하였다. 측면에는 용, 봉황, 화염, 구름, 당초무늬, 육각문 등을 투조(透彫)기법으로 표현하였으며, 원판의 달개를 달아 화려하게 마무리하였다.

고려 초기 최대 왕실사찰, 천안 천흥사

천흥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통해 신라 통일기를 전후한 시기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023년 발굴(시굴)조사를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11동과 함께 담도시설, 담장시설, 배수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지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유물은 천흥사 지명이 새겨진 기와를 비롯하여 ‘천흥사 우’라는 글씨가 새겨진 청동 접시, 송나라 동전인 ‘황송통보’, 청동소탑 등이 수습되어 천흥사가 왕실사찰로서의 그 위격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확인되었다.



‘천흥사 삼보(天興寺 三寶)’명 명문와



‘천흥사 우(天興寺 右)’명 청동접시



청동소탑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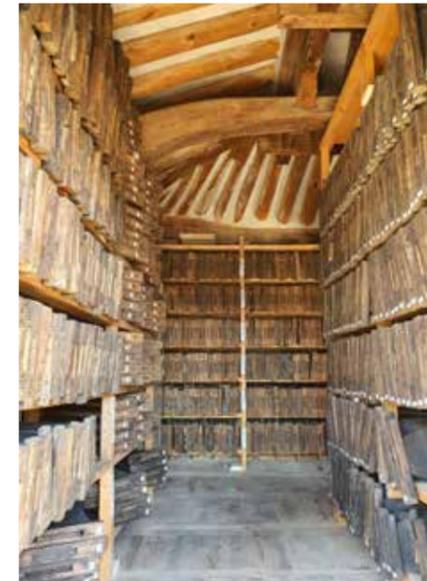


4

도민과 함께하는 명품 박물관

돈암서원에서 온 성리학의 책판 지혜와 예의의 길

이상현
박물관운영부



돈암서원 장판각 책판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 장판각에서 보관 중이던 책판 14종 1,800여 판을 기탁받아 2021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수장고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관된 책판에 새겨진 글자들은 아름다우면서도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 새긴 책판들이 즐비하고 그 글자에는 성리학과 예학 그리고 당대 학자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특히 조선시대 학자이자 예학 사상가인 김장생과 아버지 김장생과 예학의 기본적 체계를 완비한 김집의 문집과 저서들이 책으로 간행하기 위해서 목판에 새겨 놓았다.

그 중에서도 김장생이 주자의 『가례』를 증보·해석한 『가례집람』, 상례와 제례를 시행할 때 지침이 되도록 마련한 예법서인 『상례비요』의 책판 등이 대부분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다.

책판을 기탁받기까지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2020년 처음 시작된 찾아가는 유물관리 서비스 사업은 2021년까지 돈암서원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던 책판 대상으로 하였다. 오래도록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책판을 처음 밖으로 꺼내어 실태점검을 진행하게 되었다. 더불어 오래도록 쌓여 있었던 묵은 먼지와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책판이 오래도록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장판각 안에 방충 살균을 위한 스프레이, 살균제, 조습제 등을 설치하여 책판 보관환경을 개선하였다. 하지만 장판각 책판에 대해 2년 연속으로 찾아가는 유물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살펴보니 책판을 오래 보관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돈암서원 김선의 원장에게 장판각에서 책판을 오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온습도가 유지되고 방충되는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추가로 드리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찾아가는 유물관리 서비스 현장



수장고 책판 격납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시점에 돈암서원에서 연락이 왔다. 돈암서원의 장판 각에 보관된 책판 모두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기탁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찾아가는 유물관리 서비스를 통한 인연의 시작으로 책판을 기탁 받게 되는 순간이었다.

돈암서원 책판 1,800여 점을 옮기는 작업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옮기게 되었다.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책판의 포장, 포장 순서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유산에 손을 대는 감동과 책판들이 지닌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책판을 수장고에 옮기고 난 이후에는 상세 목록과 사진촬영을 진행하고 각각의 책판에 네임택을 붙여 순서대로 수장대에 수납하였다. 이는 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향후 연구 및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책판마다 고유한 이야기와 의미가 담겨 있었기에, 정리 작업은 이러한 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책판을 이관하고 정리와 수납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예학이 현대에도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다양한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었다.

돈암서원의 책판은 우리 연구원과 박물관에 새로운 문화적 유산을 선사하였다. 이 책판은 예의 바른 삶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예의와 예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 시켜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책판을 통해 연구와 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학의 정수를 전하며, 그 가치를 계속해서 존중하고 이어가야 할 것이다.



수장고에 격납된 책판



수장고 책판 격납



2022년 기증기탁 특별전 돈암서원 책판 전시

국내·외 전시회로 전하는 빛나는 충남의 역사와 문화

손균익
박물관운영부



2006년 충남역사박물관 개관식



2008년 아메미야 기증유물 특별전



2019년 개원 15주년 특별전 개막식

충남역사박물관은 도민에게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하고자, 2006년 개관 이래 상설전시실의 운영과 함께 총 46회의 기획특별전을 개최해왔다.

박물관 2층에 위치한 상설전시실에서는 충청감영과 관찰사, 호서예학과 선비정신의 전통, 충남의 인물, 근현대 민속생활 유물 등의 주제 아래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였다.

특히 상설전시실 내에는 ‘문화재 돋보기’, ‘이달의 문화재’, ‘충남의 문화유산 기획전’ 등의 코너를 마련하여 주기적인 전시 유물 교체를 통한 정기 기획전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이 새로운 주제 속에 충남의 문화유산에 흥미를 가지고 그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1층의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 이래 연간 2회 이상의 기획특별전을 개최하였다. 2007년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난중(亂中)에 난(亂)을 만나다 : 임진왜란기 내란을 평정한 청난공신>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충남의 무인 가문에 대한 특별전이 진행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아메미야 히로스케 선생의 유물 기증을 기념한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아울러 2015년에는 호서예학의 본산인 돈암서원과 사계 김장생·신독재 김집 부자를 재조명한 <천하동례(天下同禮), 예(禮)로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특별전이 개최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충청유학의 정수를 집약한 <충청유학, 미래를 청(淸)치다>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특히 2019년에는 개원 15주년을 기념하여 백제사에 한 획을 그었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주요 발굴 성과를 망라한 <우리가 찾은 역사, 땅 속 이야기> 특별전을 개최하여 도민과 학계의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2023년 일본 특별전 포스터

대표하는 유물 60여 점과 10점의 실감·영상콘텐츠가 전시되었다.

본 전시에서는 일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간 연구원의 발굴 성과가 집약된 백제 관련 유물과 금영축우기로 대표되는 충청감영 관련 유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 관련 유물과 더불어 충청남도과 시즈오카현 간의 역사적 교류를 보여주는 백강전투 관련 일본 현지 유물, 충남역사박물관이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미통신일록』을 비롯한 다양한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선보였다.



2023년 일본 특별전 시즈오카현지사 관람

아울러 박물관에서는 2007년의 특별 유물 공개 행사로부터 2022년의 기증·기탁 유물 정기 특별전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친 기증·기탁 유물 특별전을 개최해왔다. ‘오래된 기억, 소중한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진 기증·기탁 유물 특별전은 대대로 내려온 소장품을 도민에게 가까이 내어준 기증·기탁자의 고귀한 뜻을 선양하는 동시에 새로 발굴된 문화유산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도민과 공유하는 충남역사박물관의 중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시 경험과 내부 역량을 발판 삼아 박물관은 지난 2023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충청남도과 일본 시즈오카현의 우호교류협정 10주년을 기념한 해외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달에 걸쳐 <충청남도 문화유산 특별전 :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시회는 국내 공립박물관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개최한 기념비적인 해외 특별 전시회로, 백제부터 조선통신사에 이르기까지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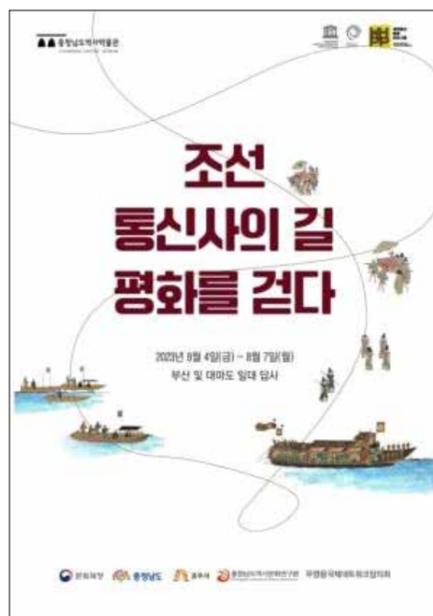
2023년 일본 특별전 현지 언론 보도

이와 함께 각 섹션마다 일본 현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남의 사계’, ‘충청감사 한해살이’, ‘충남의 조선통신사’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실감·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VR체험존 등의 첨단 전시 기법을 통해 현지의 큰 관심과 호평을 얻는 등 충남 문화유산의 빛나는 위상과 그 소중한 가치를 국내를 넘어 세계로 전하기도 하였다.

충남역사박물관은 현재 2024년 4월 개원 20주년에 맞춘 재개관을 목표로 전면적인 전시동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노후된 전시 시설의 개선과 새로운 전시콘텐츠의 도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충남역사박물관은 앞으로도 도내 핵심문화시설로서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열려있는 박물관 교육 - 조선통신사의 길, 평화를 걷다

윤경하
박물관운영부



충남역사박물관은 1811년 마지막 통신사행의 정사(正使)로 일본 쓰시마(對馬島)에 다녀온 죽리 김이교(竹里 金履喬, 1764~1832)가 저술한 『신미통신일록(辛未通信日錄)』을 비롯하여 인장, 호패, 교지, 교서 등을 2007년 일괄 수집하였다. 『신미통신일록』은 조선 시대 마지막 통신사행의 기록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아 2013년 충남 유형문화재 제22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로 1건 3점이 등재되었다. 조선통신사는 조선시대 일본에 파견된 공식외교사절단으로 조선 전기에는 일본과의 평화유지와 국정탐색 등 외교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는 단절되었고, 갈등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1607년 국교 재개와 피로인 송환을 위해 회담검쇄환사를 파견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1811년 마지막 통신사행까지 조선 후기 총 12차례 통신사를 파견하여 250여 년간 조선과 일본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조선통신사 아카데미

우리 박물관은 세계기록유산 『신미통신일록』을 소장하여 2021년부터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활용사업을 시작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과 대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2023년인 3년차 사업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2023년 프로그램 중 부산과 쓰시마를 답사하는 ‘조선통신사의 길, 평화를 걷다’ 프로그램은 ‘조선통신사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획하고 준비했다.

4월부터 시작한 아카데미는 ‘조선통신사와 한일교류’라는 주제로 7월까지 통신사행의 기록화, 복식, 선박, 의원 등 다양한 세부주제로 ‘조선통신사 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큰 호응을 얻은 아카데미를 바탕으로 부산과 쓰시마를 답사하는 ‘조선통신사의 길, 평화를 걷다’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부산박물관 답사



복원된 조선통신사선 앞에서 단체사진

이번 ‘조선통신사의 길, 평화를 걷다’ 프로그램은 『신미통신일록』을 남긴 1811년 쓰시마에서 ‘역지빙례(易地聘禮)’를 시행한 신미통신사행의 길을 따라 부산과 최종목적지 쓰시마의 조선통신사 유적지를 답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되어 축제의 가장 큰 행사인 ‘조선통신사 행렬’에 참여하여 1811년 신미통신사행의 활동을 체험하고, 우리 박물관 소장 『신미통신일록』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특히 2017년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때 참여하셨던 조선통신사 사행문학의 권위자 구지현 교수의 현장 강의를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격려를 받았다.

출발하기 전부터 참가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8월 한여름의 염천 불볕더위에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답사 내내 눈부시게 좋았던 날씨와 안전한 관리로 아무 문제없이 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다만 부산으로 돌아오는 여객선이 태풍의 영향으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심하게 요동쳐서, 조선시대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에게 험난한 파도의 바닷길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힘든 답사일정이었지만 부산에 도착하여 너무 감사하게도 앞으로 이런 답사를 계속 진행해달라는 요청 또한 있었다.



가네이사성(金石城) 앞에서

60년 만의 귀환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 유물

이유리
문화유산교류협력부



2008년 아메미야 히로스케의 기증은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며 주목 받았다. [기사 출처] 동아일보(상), 연합뉴스(하)

공주 출신 일본인의 자발적인 기증

2008년 8월 25일 충청도청에서 일본 공주회(公州會) 이사장 아메미야 히로스케[雨宮宏輔, 1932~2008]가 소장 유물 300여 점을 기증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당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한편, 일본 쓰시마[對馬]에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충남에서는 해외 반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아메미야의 기증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이 날의 뜻깊은 기증은 2006년 6월 공주대학교 윤용혁 교수와의 작은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2001년 무령왕릉 발굴 30주년을 계기로 공주시와 규슈 사가현[佐賀縣] 가라쓰시[唐津市]는 시민 교류가 활발해졌고, 2006년에 무령왕 기념비 공동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때의 행사에 참석한 윤용혁 교수는 신문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온 아메미야 씨와 만나게 된다. 윤 교수는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온 그의 열정에 감탄하면서도 문득 혹시 공주 관련 옛 자료가 남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물었으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것으로 잠깐의 만남은 끝났다고 하였다.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아 기쁩니다

아메미야 씨가 윤 교수에게 다시 연락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이다. 선친인 아메미야 다다마사[雨宮忠正, ?~1955]가 광복 전 공주에 거주할 때 수집했던 유물을 기증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윤 교수는 공주향토문화연구회장인 윤여헌 회장과 상의하여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아메미야가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유물을 가지고 왔다.



2008년 아메미야는 공주회 회원들과 함께 제54회 백제문화제에 참가하여 기증 기관 주선을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 의뢰했는데,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역사박물관에 기증할 것을 특별 지시하였고, 곧 기증식이 진행되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것보다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 기쁘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는 그가 기증을 결정한 이유가 고향에 대한 애정을 넘어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기증이 더욱 빛나는 이유이다. 그리고 그해 10월 3일, 충남역사박물관에서 <63년 만의 귀향, 아메미야 히로스케>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병세가 갑작스레 악화된 아메미야 씨는 방문 일정이 취소되어 전시를 보지 못했고, 결국 2009년 3월에 세상을 떠났다. 충남역사박물관은 특별전이 끝난 이후에도 상설 전시를 통해 기증 유물을 공개하고 아메미야 씨의 뜻을 기렸다.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 유물의 성격과 가치

아버지 다다마사는 국립공주박물관의 전신인 공주사적현창회 활동을 하며 전시 시설인 백제박물관 설립에도 관여하였는데, 소장품은 전시에 출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소장품 전체 수량은 알 수 없으나,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08년에 기증된 유물은 모두 68건 328점이다.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된 엽서를 주로 하여 청동기시대 및 백제시대 고고유물을 비롯하여 고려청자와 철화분청사기 등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리병에 든 탄화미는 함께 들어 있는 당시의 기록을 통해 부여 부소산성 군창지에서 출토된 백제 시대에 탄 쌀과 보리임을 알 수 있어 귀중하다. 또한 이들 유물들은 당시 충남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던 문화유산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 반출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엽서는 목록도 함께 남아 있어 소장품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 경성과 평양, 공주를 비롯한 충남 지역 등의 풍경, 고종 및 순종 황제의 진영, 일본 왕실 구성원과 각지의 건물 및 풍경, 간토대지진 당시의 사진 등 20세기 초 국내 및 일본의 정세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사 및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아메미야 기증 유물 중 (간돌칼, 1907년 발행 고종황제 진영 엽서, 청자음각영무문발, 탄화미)

충남과 미국을 문화·예술로 이어준 <이기하 묘지(墓誌)>

박진호
문화유산교류협력부

<이기하 묘지> 충남도와 클리블랜드미술관을 이어 주다

2023년 5월 26일, 충청남도과 클리블랜드미술관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이날 불법 반출된 충남 문화유산의 보호와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클리블랜드미술관은 미국 내 5대 미술관 중 하나로 동서양의 다양한 회화·조각 및 공예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클리블랜드미술관과의 협력이 2026년 개관하는 충남미술관의 전시 스펙트럼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하 묘지>는 과연 이 협약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백자청화 이기하 묘지



충남도·美클리블랜드미술관 업무협약 체결

사라진 <이기하 묘지> 미국에서 발견되다

2020년 어느 날, 한산이씨 정익공파 대표인 이한석 씨는 국외소재 문화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26년 전 분실했던 선조의 유물(<이기하 묘지>)이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묘지가 어떻게 미국에서 발견되었는지 대략적인 경위를 듣게 되었다.

2020년 재단은 클리블랜드미술관이 소장하던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면서 이 유물의 불법 반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묘지는 원래 무덤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었다.

클리블랜드미술관은 1998년 조셉 캐롤 부부로부터 유물을 기증 받았는데, 그들은 묘지를 1984년 일본 후쿠오카의 어느 개인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유물의 매매와 취득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1994년 이장 과정에서 직접 묘지를 수습했다는 이한석 씨의 주장과는 배치되었다.

게다가 조셉 캐롤은 과거 한국에서 유물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 반출하려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가 불법적인 경로로 이 묘지를 반출시켰다는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도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요청했다. 양 측의 주장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한산이씨 문중에서는 묘 이장 관련 문서와, 한산이씨 족보 등을 정리해 미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조셉 캐롤은 미술관의 두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기하 묘지>를 기증한 이한석 씨(오른쪽)

<이기하 묘지> 마침내 원소장자의 품으로

2021년 6월, 클리블랜드미술관은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이기하 묘지>의 한국 반환을 결정했다. 그리고 2022년 2월, 28년 간 고향을 떠났던 <이기하 묘지>가 인천공항을 통해 후손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한석씨는 당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선조님의 유물을 28년 전 제 손으로 수습했습니다. 선조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유물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하시니, 선조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문화유산 반환의 모범사례 <이기하 묘지>

그리고 이한석 씨는 묘지를 충남역사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한석 씨는 반환된 유물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연구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충남역사박물관은 2022년 4월, 유물 반환 기념행사와 특별전시회를 마련해 묘지를 대중에 공개했다. 이한석 씨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그해 11월 묘지의 반환 과정과 연구 성과를 담은 기념 책자도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책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이한석 씨는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책이 발간될 것이라고 연락을 한 지 불과 1주 후였다.



기증자 초청행사에서 이한석 씨와 가족들

<이기하 묘지>의 반환 이후 연구원과 클리블랜드미술관은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갔다. 그리고 2023년 5월,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6년 개관하는 충남미술관에 클리블랜드미술관의 미술품을 활용해 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한 발판이다. <이기하 묘지>의 반환을 계기로 충남도는 '해외 유명 미술품과 반출 문화유산'의 실견이라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도민들이 새롭게 개관한 충남미술관에서 클리블랜드미술관의 미술품들을 관람하게 된다면, '한미 협력의 결실'인 <이기하 묘지>의 반환과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길 소망한다.

이기하(李基夏, 1646~1718)

숙종대 무신으로 어영대장·훈련대장 등 요직을 거치며 숙종의 신뢰를 얻었다. 한산이씨 20세손으로 묘소와 신도비가 현재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에 위치한다.

이기하 묘지

조선 후기 무신 이기하의 생애를 기록해 무덤에 매장한 묘지(墓誌)로, 18매로 구성된 장방형의 백자 지석이다. 당시 사대부 계층에서 만든 묘지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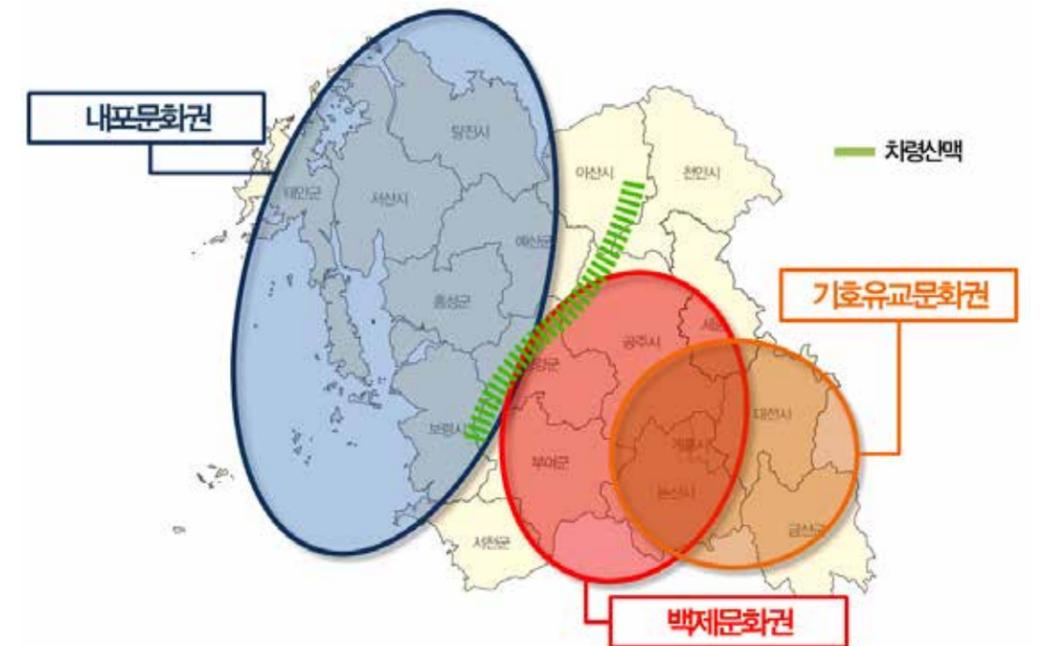
내포문화의 가치를 높이다



충남 역사문화의 블루오션 내포문화

유병덕
내포문화진흥센터장

1990년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서해안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동안 잊혀져 있던 ‘내포지역’과 ‘내포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내포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내포지역의 주요 문화유산과 유적지들이 발굴·정비되었다. 또한 문화유산을 찾는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와 기반시설이 정비 되었고, 내포보부상촌 등 내포문화를 활용한 문화시설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백제문화, 유교문화와 더불어 내포문화가 충청남도의 역사문화를 특징짓는 주요한 문화요소이자 미래 문화자원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 졌다.



내포문화권 개념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내포지역은 서해와 맞닿아 있으면서 굴곡진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고 있다. 바다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포지역의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요인은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상과 기질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해로를 통한 활발한 교류의 역사는 오늘날 내포 문화의 중요한 특질 중의 하나로 이야기되는 다양한 사상과 문화들이 수용되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내포지역(청구도)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불교, 유교(성리학), 천주교(기독교) 등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내포지역에 수용되어 한반도 전체로 전래되었고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개성 있는 사상과 종교문화를 형성하였다.

육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형성된 내포지역의 해만과 하천에 발달한 수많은 포구들은 외국의 사상과 문화, 물산이 유입되는 교두보이자 해산물과 내륙의 농산물이 교역하는 물류유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역할하면서 많은 역사적 사건과 이야기 거리, 문화유산을 남겨 놓았다. 내포지역 생업의 근간을 이루는 바다에서의 어업과 갯벌을 활용한 소금 생산, 그리고 바다를 막아서 만든 간척지에서의 농업은 내포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문화와 말씨, 민속 의례와 풍습, 예술을 낳았다. 내포지역 정신문화의 특징으로 알려진 진취성과 개방성, 독립성 또한 오랜 시간 바다와 호흡해 온 역사 속에서 이루어온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포문화의 특성이 조명되기는 하였지만 기초연구로부터 활용에 이르기 까지 수십 년간 고도로 개발되어 관광자원화에 이른 경상도와 전라도의 역사문화권 사업들이나 충남 내에서도 백제문화나 유교문화의 개발에 비하면 내포문화는 이제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분야의 ‘블루오션’(Blue Ocean)과 같은 존재이다.

충남도에서는 2021년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원 산하에 내포문화 진흥센터를 설립(2022년)하였다. 내포문화진흥센터에서는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밝히고, 숨겨진 내포문화자원을 발굴·보전하며, 나아가 문화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포문화 개발을 통해 내포문화권의 공동 발전 방안을 이끌어 내고, 내포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일 또한 내포문화진흥센터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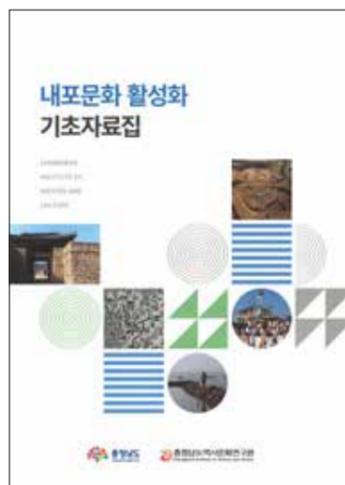
예당평야와 삼교천



내포신도시 전경

내포문화유산의 브랜드 가치 UP!

정래진
내포문화진흥센터



내포문화진흥센터에서는 내포문화의 진흥과 특성화, 그리고 정책발굴을 통해서 내포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년 내포문화권의 정체성 강화와 문화적 특성 규명 및 현재적 재조명, 내포문화 진흥정책 발굴 등을 목적으로 내포문화진흥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23년까지 내포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해양활동, 종교사상, 의병, 전통예술 등을 주제로 총 5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을 통해서 내포지역 해양활동의 특징과 의미를 재조명하여 환황해권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충남이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과 내포지역의 해양성은 학문적 토대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불교, 천주교, 유교, 동학, 의병 등 내포지역에서 전개·발전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조망하였다. 내포지역에서 발달한 종교와 사상의 현재적 의미를 찾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진흥 방안을 모색하였다.

세계적으로 내포문화유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환으로 18세기 천주교 수용기부터 박해기, 신앙자유화기에 걸쳐 형성된 내포지역 천주교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내포지역은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이자 빛자리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로 천주교 신앙이 발달하였으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진 솔미성지와 서산 해미성지를 방문하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0년 교황청에서 해미성지를 국내 최초로 국제성지로 지정하면서 해미국제성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천주교 순례지이자 세계인이 찾는 종교관광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천주교 유산을 세계적 유산으로 가꾸어가는 것은 단지 천주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포문화유산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내포문화권의 공동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내포지역은 전통 민속과 예술 등 무형유산이 잘 보존된 지역이기도 하다. 내포지역의 해양문화와 농경문화를 반영하는 풍어제와 당제, 농요, 두레풍장, 벗가릿대세우기, 기지시줄다리기를 비롯하여 보부상과 오일장(장시) 문화, 중고제 판소리, 앉은굿 등 전통 민속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무형유산들이 전승되고 있다. 내포문화진흥센터에서는 국가·도지정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내포보부상촌에서 열린 예덕상무사 공문제

전승과 보존은 물론 새로운 유산을 발굴하여 전통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고 지정 신청을 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예덕상무사 등에서 전승되는 보부상 공문제와 서산·당진·태안 일대의 벗가릿대세우기는 전국적으로도 희소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 유산으로 육성해 가기에

손색이 없다. 내포지역에는 이 외에도 용대기 놀이, 두레 풍장, 등바루놀이, 굴부르기제, 당제, 독살 어업, 자연 생산, 중고제 판소리 등 전통 유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되거나 조명되지 못한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다.

한편, 내포문화진흥센터에서는 ‘내포역사문화투어’,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사업’, ‘충남해양문화포럼’ 등 내포문화와 내포지역의 문화유산을 충남도민과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답사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아직 내포지역과 내포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답사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내포문화진흥센터가 수행할 주요 과제이다.



미래무형유산으로 육성 중인
충남의 벗가릿대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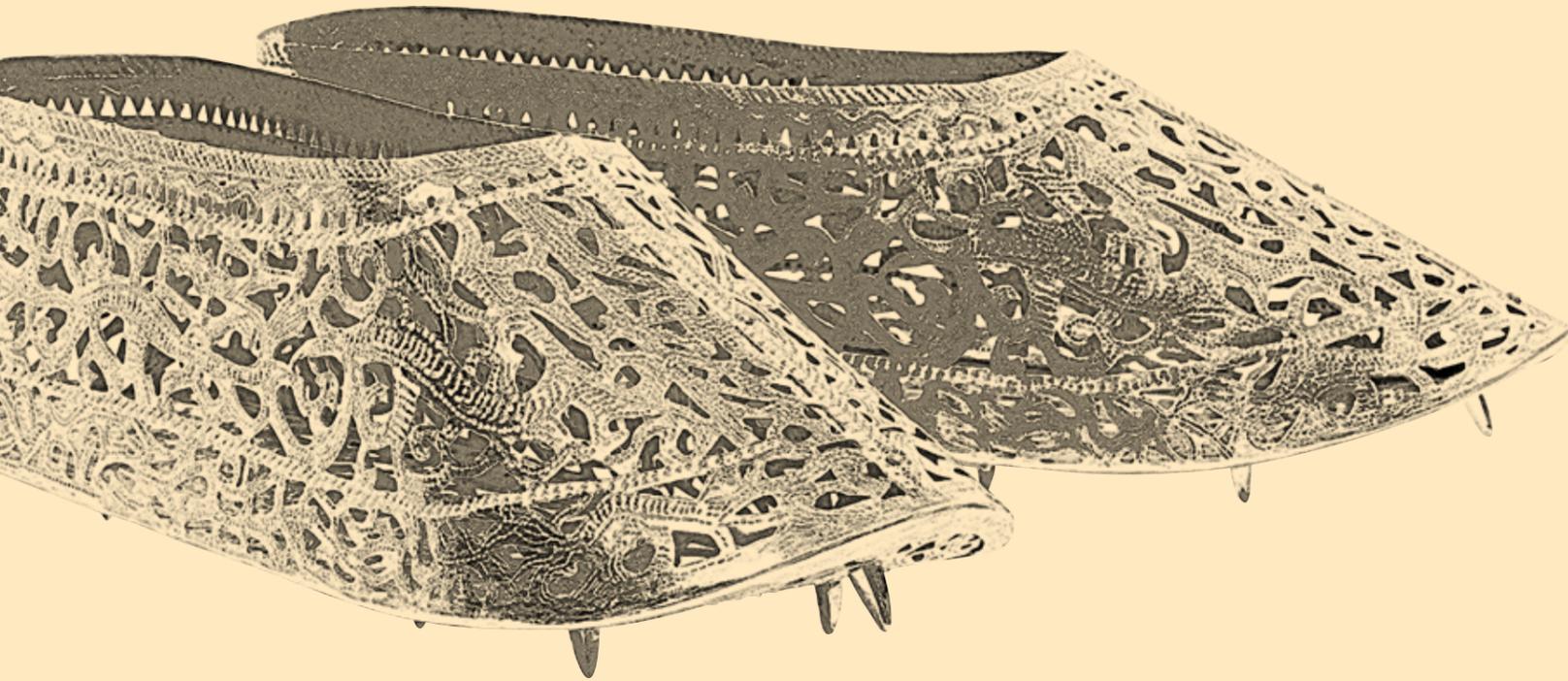


해미국제성지 대성당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3부

함께 걸어 온 사람들

1. 역대 원장들의 기억
2. 연구원과 함께 했던 사람들
3. 국내외 교류 협력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1

역대 원장들의 기억



1~2대 원장 故 정덕기 원장

역대 원장

01 제1~2대 정덕기
2004.04.01.~2007.03.24.

제3~4대 변평섭 **02**
2008.03.25.~2011.07.15.

03 제5대 이해준
2013.11.01.~2014.12.31.

제6대 장호수 **04**
2015.06.08.~2017.06.07.

05 제7대 이종수
2017.07.07.~2019.07.06.

제8대 박병희 **06**
2019.07.07.~2021.07.06.

07 제9대 조한필
2021.07.07.~2023.07.06.

제10대 김낙중 **08**
2023.08.01.~현재

열정과 땀의 20년

3·4대 원장 변평섭

충남도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선양하며 보존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가 2008년 3월 부임했을 때는 공주 중동에 있는 역사박물관에서의 웅색한 생활을 떠나 지금의 새 사옥으로 이사를 했을 때였고 현대식 수장고도 마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새롭고 희망찬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무렵 업무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내포 도청 건설, 아산 삼성전자 건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이 계속되었고 우리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억척스러운 정신’으로 이것들을 흠 없이 100%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충남도내 기관 경영평가에서 연속 1등을 했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유물기탁 운동으로 집안에 숨겨진 유물들이 햇빛을 보게 된 것, 일본 동경 한복판에서 한·일 공동으로 백제문화에 대한 세미나를 연 것 등등... 정말 가슴 벅찬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내 머리를 스칩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20년을 맞아 그 열정을 다시 불태우시길 바라며 우리 직원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창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5대 원장 이해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전국 최초, 유일한 지역 연구원,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20년 동안 크고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온 지역문화 연구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알려진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창설과 함께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가 만들어져 초창기 충남지역의 발굴조사 사업, 그리고 학술세미나 등을 진행하였다. 이때에 부족하지만 연구 소장으로 함께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리고 곧이어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창설되기에 이르러,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잘 알려지지만 초창기에 『충청남도지』, 『백제문화사대계』 등의 커다란 발간사업과 각종 발굴조사, 학술연구 등을 진행하고, 이어 개원 10주년과 15주년의 기념으로 유적 발굴 및 기탁, 기증 유물 특별전시와 학술행사, 책자발간 등 주목할 연구성과들을 공유하였다. 10주년이 되던 해에 연구원장으로 책임을 맡아 충남의 역사문화, 특히 금강과 내포문화 연구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귀한 연구작업들을 진행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그리하여 『내포문화총서』, 『금강역사총서』 등 정말로 분야별, 지역별로 아주 다양하고 귀중한 학술조사, 연구사업들을 연구원들과 전문연구자들이 힘을 합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우리 연구원이 특별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자리매김을 하였다.

뜻깊은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며 참으로 그간의 노력과 애정, 그리고 수많은 조사·연구 성과들에 박수와 찬탄을 보내 드린다. 연구원장님과 연구원들에게 앞으로도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더욱 보람되고 알찬 발전, 귀한 연구 사업성과들을 이루시길 충심으로 기대한다.

백제 역사를 날날이 밝혀내야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6대 원장 장호수

서울을 떠나 대전 청주를 거쳐 공주에 들어온 것은 2015년 6월 8일이었다. 공주에서 두해살이는 짧은 여정이지만 부여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내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의 시기가 된다. 어쩌다보니 백제의 길을 좇아온 셈이 되었고 부여사람이 되다보니 귀촌을 넘어 백제 역사가 궁금하다.

학창 시절 드문드문 보았던 먼지 쌓인 책장을 다시 넘겨보기도 하지만 어디 쉬운 일이던가. 백제역사라는 것이 사기, 유사에는 없던 것이 서기, 통전에는 버젓이 나타나는데, 아직도 찾아내야 할 잊혀진 역사가 곳곳에 있으려니 이곳저곳 역사의 현장들을 찾아다녀 보지만 지친 발걸음을 돌린다. 사비 백제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호암사는 흔적도 없고 낙화암은 꽃바위가 맞고 궁남지는 근거없이 만들어진 가짜일 뿐이라는 설이 분분하다. 지난해 새로 쓴 사비백제사는 그저 사비고고학개설서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으니 백제역사를 바로 알기에는 한참 엇나간 것이다.

그리는 동안 익산에서는 왕궁과 후원이 실체를 드러내고 무왕릉, 서동생가터를 새로 꾸미고 이제 궁남지까지 찾겠다는 야심찬 기획들이 끊이지 않는다. 기왕에 백제의 길을 좇아왔으니 이제 익산으로 넘어갈까나.

백제 역사를 날날이 밝혀내야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란다.



벚꽃처럼 만개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며~~

7대 원장 이종수

요즘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가 벚꽃엔딩이다. 나는 벚꽃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충남역사박물관 뒷동산의 100년이 넘는 왕벚꽃나무이다. 박물관 앞마당과 동산에 벚꽃이 피면 하늘은 온통 연분홍색으로 변하고 흩날리는 벚꽃에서 향기가 쏟아진다.

이런 낭만과 역사가 숨 쉬는 이곳에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첫 출발을 시작하였다. 나 역시 개원하는 2004년에 이곳에서 첫 임명장을 받았고, 이후 6년 여간의 연구원 생활과 2년 여간의 원장 직책을 담당하면서 연구원과의 인연을 이어 나갔다. 연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충남도민을 위해서는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 충청남도와는 먼저 고민하고 제시하라. 시군과는 생각을 함께하고 공유하라.’라는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연구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올해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연구원은 유무형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60여 명의 직원에 연 16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충청남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성장에는 연구원 식구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충남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충남도민의 친근한 역사 길라잡이,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브레인, 시군의 믿음직한 파트너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혁신 성장으로 이룬 성과

8대 원장 박병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04년 4월 충남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여 현대에 재조명하고 이를 정신적 유산으로 후세에 계승 발전시켜 나갈 목적으로 설립된 역사문화연구원이 그동안 많은 성과와 업적을 남기었습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성 있게 정리한 『백제문화사대계』 편찬, 충남의 역사적 자취와 생활상 등을 가감 없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충청남도지』 발간, 충청의 역사문화를 알차게 정리한 연구원 대표 학술지 『충청학과 충청문화』, 충남인의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346명) 도정을 빛낸 10대시책 선정 등 헤아릴 수 없는 성과와 보람을 남기었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연구 분야에서는, 백제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공주 수촌리 금동관모’, ‘서산 부장리 금동관모’와 ‘초두’ 등의 발굴은 백제시대의 역사문화연구에 큰 힘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역사박물관 운영면에서는, 근·현대 충남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4만 여점에 달하는 중요유물의 소장 및 전시, 매년 구름인파가 몰려드는 박물관 ‘벚꽃문화 축제’는 지역 힐링축제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분야에서는 ‘독립청사’의 확보, 역사문화원을 ‘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학술연구기관으로의 위상을 높인 점,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평가 등은 실로 잊지 못할 성과입니다.

이에, 행정담당관 3년, 8대 원장으로 2년을 함께한 동지로서의 바람은, 자랑스런 20년의 역사와 경험을 디딤돌 삼아 배려와 존중으로 직원 간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쉽 없는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 있고 생동감 넘치는 중부권 최고의 역사문화연구원이 되길 손모아 기원합니다.



전국 유일 기관으로 우뚝 서는 20주년

9대 원장 조한필

창립 20주년을 맞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 20년 역사 속에 저의 원장 시절도 포함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살은 사람으로 치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시기입니다. 연구원도 그런 도전의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충남도의 중심 기관으로서 우뚝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연구원은 전국 유일한 기관입니다.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만 합니다. 역사와 문화재 전공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그 성과물을 전시·활용하는 기관이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2022년 원장 재임시절, 연구원은 이런 자신감으로 도 산하기관들 통폐합 와중에도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또 그해 파생기관(한국유교문화진흥원)까지 곱게 길러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연구원의 특별한 존재 가치를 인정해준 전국의 역사 연구자들, 연구원을 감싸줬던 많은 도민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두 연구원 구성원들의 20년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항상 그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구원은 젊은 연구자들 요람입니다. 유관 전공 학사·석사들이 더 넓은 학문세계로 나가기 앞서 몸담고, 일하며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40년 전 연구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석사 취득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신문에 들어가려는 바람에 학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연구원이 있었다면, 백제 건국 문제를 연구했으니 이곳에 들어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절대 가치를 재삼 확인하는 20주년입니다.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2

연구원과 함께 했던 사람들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및 소통을 위한

직원 한마음 화합행사

2023. 10. 10.(화)~10.11.(수) / 태안·서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주년을 축하하며

이 훈 연구교수
공주대학교역사박물관

출범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되었다니, 시간의 흐름이 화살과 같이 빠르네요.
1999년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센터로부터 시작했고, 2004년 충남역사문화원으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연구기관으로 성장시킨 구성원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년의 역사 위에 충청지역 역사학 연구의 중심으로, 고고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우뚝 선 모습을 보게 되니 한때 함께했던 연구자의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발굴조사기관으로 출발하였을 때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구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극복해
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공주 장선리유적, 2003년 공주 수촌리유적, 2005년 서산 부
장리유적, 2006년 서천 봉선리유적 등 조사하는 유적마다 사적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학계의
큰 반향과 함께 그 역할을 인정받고 고고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 수촌리유적의 조사는 백제사 연구에 있어서 무령왕릉 발굴 이후 최고의 발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2004년 충남역사문화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구에 회자될만한 유적들을 내 손으로 조사하는 것, 또 특별한 유물들을 발굴한다는 것은 확실히
행운이고, 그러한 행운이 당시 유독 우리 연구원에 집중되면서 학계와 연구자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
었습니다.

금동관과 금동신발, 부러진 관옥 등 백제사의 베일을 걷어내는 발굴 유물들의 역사성과 감동적인
스토리는 고고학자가 된 기쁨과 자긍심을 주었고, 이러한 성과는 발굴에 함께한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고고학계의 미다스의 손이라는 분에 넘치는 찬사도 들었습니다.

처음 발굴기관의 출발에 대해 주변의 경계와 우려도 있었지만, 20년 경력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조사 연구기관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모두에게 큰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는 순도 높은 연구를 통해 역사연구에 기여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연구자들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개인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연구원과 함께 성장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

강종원 교수
국립한밭대학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개원 축하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원장님과 연구원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있어 수많은 업적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충남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2004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과정에 참여했던 창설멤버 중 한 사람으로서 연구원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20주년을 자축하고, 더욱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당시 충남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충남발전연구원(현 충남연구원)의 부설로 있었던 역사문화연구소를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시켰는데, 필자는 그 과정에서 연구원의 조직과 예산, 운영규정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오래지 않은데 어느덧 20년이 지났고, 현재 연구원은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저는 연구원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실의 대부분 보직을 경험하였고, 중요한 연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공주 수촌리유적과 서산 부장리유적, 백령산성의 발굴, 백제문화사대계의 편찬과 도지 편찬 등 연구원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에게는 행운이었고, 연구원이 제게 준 반대급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연구원의 20년 역사는 필자의 성장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도 출연 기관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은 충남의 역사적 정체성 제고와 문화발전에 기여하였고, 학계와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후학양성과 학문적 발전에도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자도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후학양성과 학문연구에 몰두하고 있지만 연구실에 외롭게 앉아 있으면 여전히 연구원에서의 생동감있고 활기에 넘쳤던 생활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연구원 생활이 마냥 즐거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밀려드는 연구사업과 시간에 쫓기는 보고서 마감,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알력 등 어려운 점들도 많았지만 연구원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였기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필자의 성장에는 구성원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원장님과 연구원 가족 모두에게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후대에 영원히 읽혀지기를 바라며...

조원식
전 행정실장

충청남도청을 마지막으로 38년 2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6. 1. 1. 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연구지원실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앞으로 계약된 2년 동안 마지막 공적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다.

결론은 그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봉사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하게 되었다.

우선 직위에 걸맞게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인가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연구원의 조직이 보다 활성화되고,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연구원들이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려고 하였다.

2년의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국도비 보조금 확대를 통한 연구원 재정의 안정적 확보, 연구원의 각종 규정의 재정비를 통한 운영의 체계화와 연구원 직위의 재정립, 자료실 정비, 무상임차 중인 교통연수원 공간을 비워주어야 하는 문제 해결, 수장고의 안정적 운영과 연구 공간의 확충을 위한 건물의 신축 재원 확보와 기반 조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기억에 남는 일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히 행정 분야의 직원들에게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서운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아쉬운 사항을 굳이 밝힌다면 연구 분야에서 연구원들과 적극적으로 토의하여 시·군별로 각 지역의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사는 곳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지역별 쉬운 역사 도서의 발간, 드론을 이용한 도내 주요 지역의 정기적 촬영을 통한 영상과 사진의 기록화, 옛 생활 속에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귀신과 도깨비의 이야기 발굴과 문화계와 협조를 통한 캐릭터 등의 발굴, 구수한 충남 사투리의 연구와 기록화, 사라져 가는 도민들의 소장품, 기록물 등의 적극적인 수집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하였다.

충남도민들이 굳이 오래된 역사가 아니더라도 지나온 삶과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보다는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연구원의 발전과 조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 옛날에는 이랬구나.”하고 후대에게 영원히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3

국내외 교류 협력

한 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 도민들의 일상속에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온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20년간 광역지자체 소속 연구기관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놀라운 성과를 창출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백제문화권과 충청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에 이르는 깊고도 넓은 문화와 역사의 뜰에서 건져 올린 연구와 조사의 결실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문화,예술의 콘텐츠의 도도한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근무할 때 백제 세계문화유산의 핵심을 알리는 여러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무령왕릉 발굴 50주년과 백제 귀걸이전, 무령왕 서거 1,500주년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따뜻한 성원은 어느 기관의 지원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령왕릉 발굴에 비견되는 공주 수촌리유적의 놀라운 출토품은 박물관을 찾는 학계인사와 국내외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있는 전시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2년 반 동안 국립공주박물관장으로 근무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소임을 맡아 근무하면서 돌아보니, 한편으로는 흔히 백제문화권으로 말하는 공주,부여,천안은 고대사로 한정할 수 없는 풍부한 전체 한국사의 보고이자 동아시아 중세사와 근현대사의 생생한 역사현장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앞으로도 충남의 무궁무진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가득 싣고 지난 20년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향해 힘차게 향해하는 거함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식

효우정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오늘의 소중함을 역사문화를 통해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역사문화를 선양하고 역사문화정책을 선도해 온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입장에서 매우 특별한 기관입니다. 바로 진흥원이 탄생하는데 산파 역할을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2004년 개원 이래로 충청남도 역사문화의 깊이와 폭을 넓혀왔고, 도민들께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동안 연구원이 이루어온 백제문화의 세계화, 충청권 기호유교문화의 선양, 내포문화의 재발견과 같은 특성화 연구는 대한민국 속 충청남도의 문화적 색깔을 드러냄과 동시에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세월 연구원의 성과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모든 이들의 삶의 지혜로, 통찰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식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청남도 지역학의 중심 학술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역할과 공헌에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충남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역할은 지역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성과는 지역을 넘어 역사, 문화의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한성백제박물관 2011년 개관을 준비 당시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온 두 기관의 인연은 현재도 이어져 연구원은 한성백제박물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고 동지입니다.

연구원의 이제까지의 노력의 결실은 우리나라 역사, 문화 연구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이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 역사, 문화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며, 김낙중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한성백제박물관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기원합니다.



한성백제박물관과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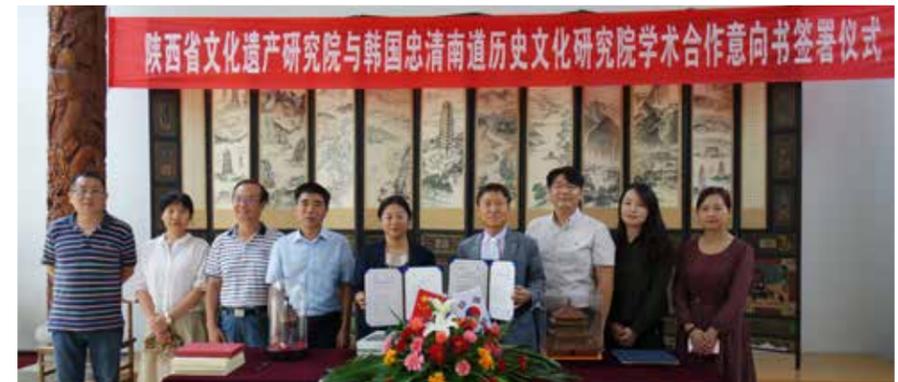
충남역사문화연구원 MOU추진 현황

체결일자	협약기관	협약내용
2004. 10. 14	국립공주대학교	• 양 기관 연구원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를 위한 협력, 신기술 도입 시 상호 지원 운영 등
2005. 10. 04	한국전통문화학교	• 우수인력 교류(겸임 및 강사) 및 현장실습과 세미나, 워크숍 등 정보교류 협력 등
2006. 02. 07	국립공주박물관	• 양 기관 연구원의 상호위촉 및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등
2006. 08. 28	국립공주박물관	• 웅진지역 백제문화상의 재조명을 위한 특별전 (한성에서 웅진으로) 공동 주치를 위한 협약
2006. 10. 10	중화인민공화국낙양대학	• 연구 프로그램, 강의, 학술회의 및 토론회 등 공동개최, 학생 및 교직원과 연구원의 교류 등
2006. 11. 13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연구과제 수행 시 관련분야의 자문 또는 참여, 인력·연구기자재·시설 등의 공동 활용 등
2007. 08. 28	충남테크노파크 외 4개 연구기관	• 공동 정책개발, 연구수행 및 세미나 개최 등
2008. 07. 31	건양대학교	• 충청남도의 역사, 철학, 문화, 인물, 기록, 문화재, 원형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연구
2008. 12. 10	충남대학교	• 박물관 유물 대여 및 상호 교환전시, 보존처리 기자재 공동활용, 백제역사문화 등 연구 협력
2008. 12. 18	단국대학교	• 충남의 역사와 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 충청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연구 등
2008. 12. 26	충청남도개발공사	•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사업의 참여 확대, 문화재 조사연구 및 정비보존방안 등에 대한 협력 등
2009. 03. 27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 용역수행 시 관련분야 자문 및 위탁연구 공동참여, 유물 수집·전시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2009. 06. 08	(주)에이앤디스리디	• 연구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인력·서적·소장 문화재·연구기자재·시설·정보 등의 공동활용
2009. 06. 11	한서대학교	•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의 상호위촉 및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등
2009. 07. 15	국립국악원	• 백제 음원 복원과 콘텐츠 개발(악기고증 조사 및 학술회의)에 관한 협력
2009. 09. 15	상명대학교	• 우수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상호 연구협력 등
2010. 03. 23	홍성군	• 박물관의 전시유물 수집·구입을 위한 상호협력 등
2012. 04. 19	충남공무원교육원 외 6곳	• 기관 상호간 교육 및 시설운영에 대한 협력 등
2012. 06. 01	산수박마을(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 충청남도 「3농혁신」의 일환, 뉴세마을운동 및 자원봉사활동, 농촌일촌돕기 등
2014. 01. 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기관 협의에 의한 전문연구과정수행계획서에 따른 연수생 지도, 실습 등 실제로 연수생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 기회 제공 등
2014. 3. 11	충남도립청양대학	• 연구협력,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양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016. 01. 46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민속문화의해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및 관련 학술조사,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
2016. 03. 22	한국문화연구원	• 백제 역사문화 관련 홍보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전승 공동 협력 등
2016. 04. 26	한성백제박물관	• 백제 역사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 상호협력 등
2016. 06. 16	태안문화원	• 태안군 학술조사 및 연구 상호협력, 역사관련 교육 및 문화행사 등 상호교류·지원 등
2016. 09. 05	산시성문화유산연구원	• 백제 역사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 상호협력, 학술사업을 위한 연구자료 상호 지원, 세계유산 등록 등 국제 협력사업 상호 협조 등
2016. 11. 03	산동대학교유학고등연구원	• 유교문화, 백제사, 지역 민속문화 등 학술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 상호 협력
2016. 12. 15	중국공자연구원	• 유교문화, 지역 민속문화, 전자·교육·문화행사 등 상호교류 및 인력·시설 등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
2017. 02. 20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백제문화, 충남의 역사문화 바로알기 및 충남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홍보와 양 기관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
2017. 02. 28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충남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원형보존과 체계적 기록화를 위해 학술적·기술적 협력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 사항 협약

체결일자	협약기관	협약내용
2017. 04. 13	공주대학교 도서관	•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상호 학술정보 교류 및 이용 등 협력체계 구축
2017. 05. 12	한국국학진흥원	• 인문학 분야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인적·물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이와 관련된 필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함
2017. 07. 25	귀양공학당문화전파중심	•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유교문화 심화 연구 및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약
2017. 12. 1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백제-신라 양 문화권의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협약
2018.02.26.	국립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백제문화 학술 정보 교류에 관한 상호지원 및 협력으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국립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의 공동이익 증진
2018.03.20.	국립공주박물관	• 연구기간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2018.03.22.	충청남도교통연수원	• 역사문화연구원이 토지 내에 역사문화연구원의 건물 신축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며,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부담
2018.04.03.	The Institute of Philosophy, Vietnam Academy fo Social Sciences	• 상호협력교류의 내용
2018.04.03.	The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Studies, Vietnam Academy fo Social Sciences	• 상호협력교류의 내용
2018.04.04.	The Institute of Sino-Nom Studie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 상호협력교류의 내용
2018.04.13.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재)충남문화재단	• 상호간 업무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의 정신인 충남문화의 계승발전 및 백제문화의 심화 연구, 콘텐츠 개발을 목적을 위한 협약
2018.04.18.	충남-세종향토사연구연합회	• 지역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와 역사문화 부양의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2018.05.0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충청지역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
2018.05.03.	금산군	•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양 기관의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2018.05.04.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산문화재단, 부산박물관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소장 및 관리하고 있는 국내 기관의 기록물의 가치 제고 및 활용을 통한 상호협력 및 교류
2018.05.13.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분야의 협약으로 현대사회에 적합한 유교문화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연구인력 교류
2018.06.07.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서로 협력
2018.06.11.	공주대학교 링크 사업단	• 산합협력으로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 및 지역사회 혁신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공동 노력 하기 위한 협약
2018.06.20.	도서문화연구원	• 도서해양 연구의 활성화와 학술교류를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술연구, 행사, 교류의 협력
2018.10.31.	구마모토현립장식고분관	•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대한일관계사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협약
2018.11.28.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 지역사회 관련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이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
2018.12.1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유교문화 진흥과 충청유학의 심층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 분야의 협약

체결일자	협약기관	협약내용
2019.01.24.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7개 기관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충청미래정체성 확립과 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체제 유지
2019.05.09.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충청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협약을 위한 협약
2019.06.18.	충남공무원교육원,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충남교통연수원,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교육청외국어교육원, 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	• 충남 교육·연구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및 공동협력과 상생발전
2019.07.16.	퇴계학연구원, 사단법인 울곡연구원, 청운대학교 남학당연구소,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유교문화진흥과 유학사상의 심층연구를 위한 학술연구
2019.09.18.	지성공자기금회	•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유교문화 심화연구 및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
2019.10.28.	NH농협은행 공주시지부	• 양 기관의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
2020.03.13.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양기관의 업무제휴 협약
2020.06.24.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충남지역 도지정 문화재 보호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2020.07.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호남진흥원	• 한국학의 심층연구와 진흥,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2020.08.13.	사단법인 조선시대통신사현창회	• 멸실되는 충청지역 유물수집 및 조선통신사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협약
2020.09.01.	한국영상대학교	• 박물관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협약
2020.09.25.	충남지역문제해결	•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충남지역 문제해결 플랫폼에 참여 및 협력
2020.10.16.	서천군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 등 연구사업의 상호 협력·지원 및 학술정보 교류 등
2020.12.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역사문화 분야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인적·물적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근거 마련
2020.12.23.	공주정명학교	• 도내 중요 매장문화재의 활용사업과 관련한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마련
2021.03.23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 충남 해양문화 관련 정책사업 및 학술연구 협력 추진
2021.04.06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공주시회	•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2021.06.08	백제고도문화재단	• 백제 역사문화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021.07.06.	사단법인 충남벤처협회	• 충남지역 역사문화 지역 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1.07.26.	고려대(세종) 한국학연구소, 충북대 우암연구소,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충청남도 향교재단	• 한국학, 충청학, 충청유교문화 관련 협약
2021.08.20.	청양군	• 청양지역 역사문화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2021.09.01	문화유산회복재단	• 국외소재문화재 교류협력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2021.11.22.	中 산동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및 K-유교문화 홍보 등 교류협력

체결일자	협약기관	협약내용
2021.11.23.	백야김좌진장군학술문화사업회	• 백야 김좌진 장군의 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2021.12.02.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 충남출신 독립운동가 석오 이동녕 선생 업적 재조명 및 중국 내 유적지 활용 방안 모색
2021.12.03	충청남도(충남도-10개 공공기관)	•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1.12.22	中 장쑤성유학학회	• 유교문화와 민속문화 등 학술연구 상호협력
2022.01.12.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	• 공동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 산학협력
2022.01.14.	논산시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성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2022.03.02.	천안박물관	•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공동 학술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2022.03.24.	국외소재문화재단	• 국외소재문화재 교류협력 및 활용
2022.04.11.	천주교 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	• 내포문화권 천주교 관련 학술연구 및 활용사업 협력·추진
2022.08.10.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 국외소재문화재 활용 및 교류협력
2023.03.28.	상명대학교	• 충남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2023.04.21.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 태실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력 연구기관 간 업무 협약
2023.05.12.	충남역사박물관-고려대학교 박물관	• 충청남도역사박물관-고려대학교박물관 간 업무 협약
2023.06.26.	충남역사박물관-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 충청남도역사박물관-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간 업무 협약
2023.9.13.	충남도립대학교	•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취업 지원과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023.10.2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태실 세계유산화 실무회의 원활한 공동사업 추진 및 네 기관의 상호협력 을 위한 업무 협약
2023.11.27.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충남지역의 역사·문화 연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양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2023.12.28.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충남지역 도지정 문화재 보호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
2024.01.15.	국립한글박물관	• 역사자료 발굴 및 소장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연구, 전시 활용사업 상호 협력
2024.03.2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 역사자료 발굴 및 소장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연구, 전시 활용사업 상호 협력



중국 산시성문화유산연구원과 교류 협약

일상 속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삶,
그 삶을 오로지 지켜나가기 위한
충남역사문화연구의 진심어린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4부

연구원이
꿈꾸는
내일

1. 우리가 기대하는 연구원의 내일
2. 도민이 바라는 연구원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1

우리가 기대하는 연구원의 내일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호경
문화재연구부

현재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 나갈 앞으로의 20년, 그리고 20년이 지난 그때의 우리 모습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조직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효율화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과 연구, 부서간 협업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년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의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물론 승진과 요즘 핫한 주 4일제에 대한 의견도 빠지지 않았습니

다. 두 번째, 내가 실장과 관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역시 소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수시로 진행되는 각종 회의에 발생하는 업무 방향성과 이면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의 의견으로는 연구능력이 있는 연구원 양성 및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질 좋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손꼽았습니다.



세 번째, 향후 10년 또는 20년간 연구원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또는 만들어가야 하는 한가지는? 이란 질문에 가장 눈에 띄는 의견은 ‘명확한 비전과 전략과제가 설정된 방향성 있는 연구원’ 이란 글이 주요하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잘 정의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한가지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선제적인 역량’ 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연구원에 요구되고, 또 우리 역시 달성하고 싶은 목표이기에 앞으로의 주요 목표는 역시 모든 직원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1차원적 연구분야에서 나아가 새로운 사업분야에 도전하는 장기적 시각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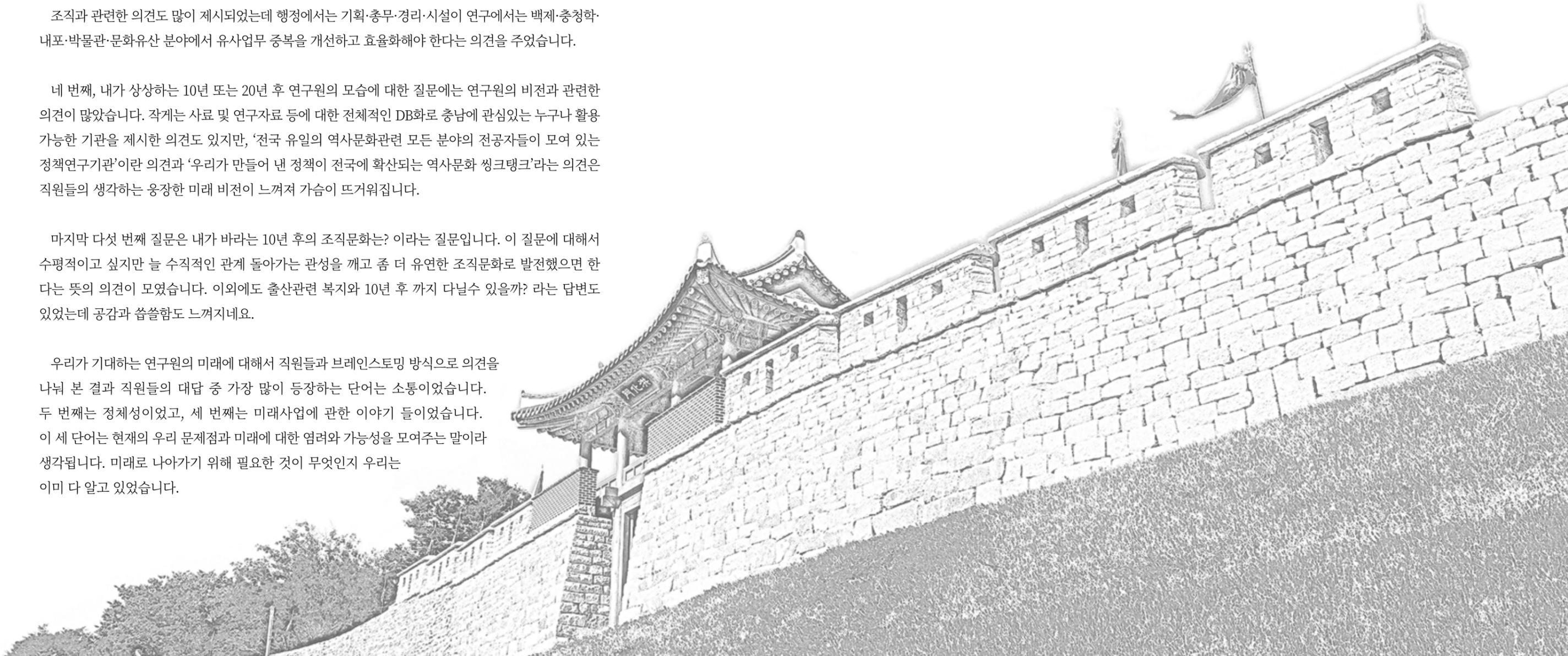
조직과 관련한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는데 행정에서는 기획·총무·경리·시설이 연구에서는 백제·충청학·내포·박물관·문화유산 분야에서 유사업무 중복을 개선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상상하는 10년 또는 20년 후 연구원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는 연구원의 비전과 관련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작게는 사료 및 연구자료 등에 대한 전체적인 DB화로 충남에 관심있는 누구나 활용 가능한 기관을 제시한 의견도 있지만, ‘전국 유일의 역사문화관련 모든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 있는 정책연구기관’이란 의견과 ‘우리가 만들어 낸 정책이 전국에 확산되는 역사문화 씽크탱크’라는 의견은 직원들의 생각하는 웅장한 미래 비전이 느껴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내가 바라는 10년 후의 조직문화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수평적이고 싶지만 늘 수직적인 관계 돌아가는 관성을 깨고 좀 더 유연한 조직문화로 발전했으면 한다는 뜻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외에도 출산관련 복지와 10년 후 까지 다닐수 있을까? 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공감과 슝쓸함도 느껴지네요.

우리가 기대하는 연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직원들과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의견을 나눠 본 결과 직원들의 대답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소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었고, 세 번째는 미래사업에 관한 이야기 들이었습니다. 이 세 단어는 현재의 우리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가능성을 모여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나눠본 5개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연구원의 미래는 효율화와 소통을 통해 현재를 개선하고 **명확한 비전과 전략과제가 설정된 방향성 있는 연구원**이라는 토대위에 **정책 기관으로서의 선제적인 역량**을 쌓고 **역사문화관련 모든 분야 연구진들이 모여 전국에 확산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전국 유일의 씽크탱크**로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2

도민이 바라는 연구원

강남식

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년 개원 이래, 우리 충남의 역사, 문화유산 연구와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주고 계신 김낙중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 연구원은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로 지난 20년간 서로 상생 발전하며, 도 문화유산 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우리 ‘문화유산’의 많은 정책연구와 현안과제들을 수행하며, 충남 역사·문화유산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은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고 선도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을 위해 많은 정책적 제안과 조사 연구 수행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원 모든 분들의 개인적 연구 성과와 건강도 기원드립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연구원의 건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신부

내포교회사연구소 소장

한국천주교회의 정체성, 그 기원과 심원한 깊이에 직면하려면 충청남도를 말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교회는 최초·최대·최선의 의미를 풍성하게 간직한 채, 한국천주교회를 선도했을 뿐 아니라 이미 한국사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종, 대전, 충남을 연구로 하는 천주교 대전교구는 이토록 탁월한 역사와 신앙 유산을 계승했다고 자부한다. 그 자부심의 근거 일단(一端)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밝혀주었다. 지역사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문화를 발굴하는 것으로 시민의 긍지를 드높이는 게 그의 사명이라면 스무 해 풍상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의 증언은 격려와 채찍의 또 다른 이름이다.

원숙에 이른 연구원의 경륜에 걸맞게 더욱 진지한 노고로 우리의 역사문화에 깃든 보화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까닭이다.

이강열

예산군 문화재팀장

저는 충남 사람이자 연구원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더 큰 성장을 기원합니다.

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연구’가 중심입니다. 연구원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충남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관 설립은 매우 어렵지만 막상 만들어진 후에는 그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신다면 앞으로 연구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개원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10년 뒤에 또 뵙겠습니다.

최명진

공주시 고도육성팀장

연구원이 걸어온 길은 ‘역사문화의 지식경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문화유산과 역사를 발굴하고 세상에 드러내 충남인의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그 성과는 지자체의 문화정책에 활용되었으며, 도민들도 지역의 역사문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있었기에 충남의 문화정책이 한단계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 고고학 중심의 유형 유산 연구에 편중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역사, 성씨, 민속, 종교 등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 것도 연구원의 큰 공적입니다.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로 역사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란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충청학과 충청문화』가 등재지로 선정된 것은 연구원의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고른 시각으로 변화를 모색하여,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수연

유원대학교 교수

지난 20년간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정립하며, 보존하고 활용하여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연구원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와 문화는 어쩌면 그와 가장 먼 대척점에 위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콘텐츠 없는 기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가진 풍부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디지털과 연계하여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철현

충남보부상협의회장

그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과 관련된 역사연구, 문화재발굴조사, 문화유산 관리와 충남역사박물관을 운영하면서 특히 백제문화권 중심의 특성화 사업에서 충청유교문화권과 내포문화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많은 관심과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동안 충청남도도 왕실·귀족 중심의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사업에 주력하면서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여 백제문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충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등 성과를 이루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서민 중심의 <내포문화권>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여 수많은 내포문화자원들을 연구하여 현재의 백제문화처럼 내포문화도 활성화 시켜 주기를 바란다.

특히 2021년도에 충청남도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충남의 9개 시군을 내포문화권으로 규정하고, 내포문화 활성화를 위한 몇몇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과 자원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내포문화진흥포럼>, <가야산·삼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이 내포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부족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연구성과와 학술발표, 전시 등이 현대적 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강의, 답사, 문화유산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역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나아가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포문화와 관련된 인물의 경우 독립운동가, 예술가, 학자, 종교인 등 인물에 대한 다양한 사상과 문화 예술이 있으며, 전통 농업의 경우 두레풍장과 농요, 용대기 놀이 등 농민들의 고달픈 삶의 애환이 있으며 서로 협동하고 존중하고 예우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볼 수 있다. 종교는 천주교,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유적과 유물 등이 산재해 있다. 전통시대 상인문화와 서민문화를 대표하는 보부상은 전국적으로 충남에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으며, 충남의 4개 보부상 단체에서는 공문제, 보부상 놀이 등의 의례와 놀이도 전승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내포문화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내포지역의 시군 및 주민들과 <내포문화자원 연계 및 활성화 사업>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특히 대학교수, 대학생들과 함께 학습회나 모임, 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내포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내포문화를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여 상품성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백제문화와 더불어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내포문화의 위상을 구축하고, 내포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 가야 한다.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모든 역량과 힘을 더하여 내포문화를 충남의 자랑스런 문화로 발전시켜 가기를 바란다.

지원구

아산시 학예연구사

사람의 나이가 스무살이 되면 弱冠이라고 한다. 이제 는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요즘의 사회초년생의 의미처럼 들린다. 이제 무엇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미완성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일뿐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20주년이 되었다. 사람을 뜻하는 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맥락은 똑같다. 그동안 도내의 역사문화연구에 초석을 다지는 등의 기초작업을 충실히 해왔다. 기초가 튼실해야 좋은 집을 질수 있다는 건 당연한 진리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기초만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다. 이제 기초를 닦았으니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立志가 요구된다.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다. 그중 앞으로 연구원의 변화요소로써 강조 하고 싶은 건 바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다. 연구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도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문턱을 낮추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도정의 보조연구기관이 아니라 주체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새로운 연구대상의 발굴과 확대야말로 뜻을 세우는 지름길이다. 지난 20년을 잘 걸어왔으니 앞으로의 시간도 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단, 언제나 그렇듯이 조급할 필요는 없다. 늘 지금이 시작이라는 마음인 처음의 뜻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연구원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의 변화와 완성에 기대가 된다.

조진석

공주시 학예연구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 역시 2004년부터 공주시청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년이 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충청도 수부 도시로서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보존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도 충남역사문화원에서 수립했던 『공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공산성을 정비하고 관리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 장선리 유적, 공주 수촌리 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고 역사공원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발굴조사와 연구 그리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문화유산의 연구·보존에만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공주시 숙원사업이었던 제2금강교 건립사업이 세계유산 공산성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쳐 있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유산 영향 평가(HIA)』를 수행하여 공산성의 보존과 조화로운 개발을 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충청남도 문화유산의 연구·관리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승현

성균관대학교 박사 수료

지난 20년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의 역사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성장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기초 연구에 투자해주시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충남 역사 기초 자료가 부족합니다. 자료집, 해제집, 번역서를 기대합니다.

둘째,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연구원의 성과중 아카이브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홈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분기별로 연구원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종료된 후에야 언론으로 접하게 됩니다.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유림

충북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백제문화사대계, 충청남도의 백제유적, 해외백제문화재, 중국출토 백제인 묘지 집성 등 학술연구서를 발간하고, 이를 백제사 연구자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해주었습니다.

백제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제의 수도인 공주와 부여를 비롯하여 충남 각 지역의 백제 유적 조사 결과

역시 백제의 사회상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제작·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대중이 상생해야 할 방법을 마련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질의 기초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양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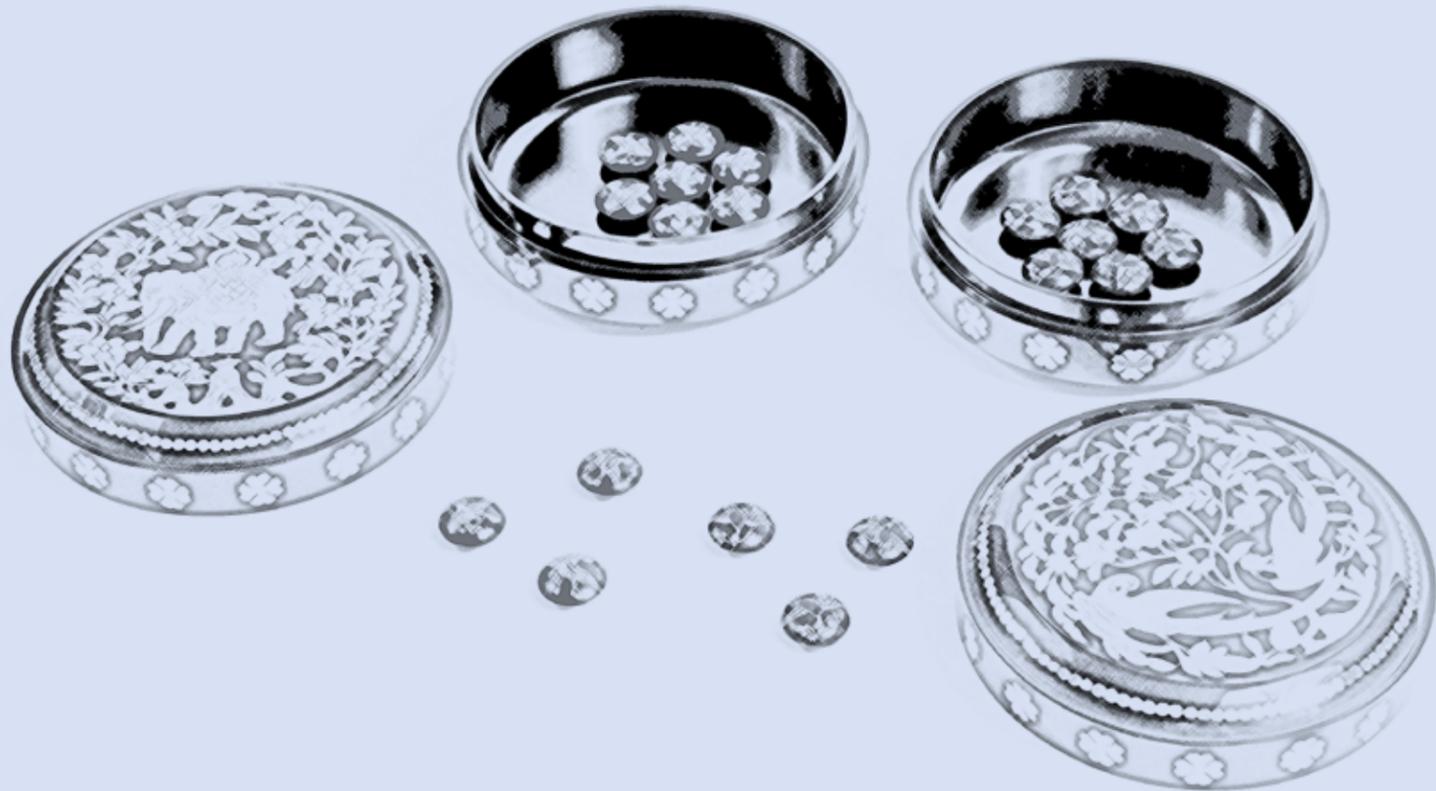
스토리텔링 작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지역학 콘텐츠를 발굴하여 편찬, 보존, 계발에 힘써주신 덕분에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에서 발간한 지역사 연구총서, 도시군읍면지는 해당 지역민의 자긍심을 드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진이나 그림, 일러스트, 만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문화유산 해설서

는 일반 독자들이 쉽게 공감하고,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술세미나 및 연구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주관하여 역사의 정통성 유지 및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색다른 접근이 자주 시도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구성원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과감한 도전을 기대해봅니다.



에필로그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의 산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개원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회고
- 편찬후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의 산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상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연구진흥실장

충청남도에 한국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전문기관이 2022년 10월 1일 탄생하였다. 바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 ‘한유진’)인데, 기관을 탄생시킨 산실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다. 연구원에서는 현재 한유진의 전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충청유교문화원 관리운영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충청남도과 논산시,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였다.

연구원에서 추진된 충청권 기호유교문화 연구는 충청남도 문화권 개발의 핵심 주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형태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충청권 기호유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서 ‘기호유교 인문학포럼’은 2011년부터 충남 전역 유교문화유산 소재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민들이 지역의 유교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충남 각 지자체의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전경

또, 연구원에서는 충청남도와 함께 기호유교유산을 활용한 문화권 개발을 위해 2015년 ‘충남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유교문화권 활성화 정책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바로 한유진의 탄생도 연구원의 기호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연구원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백제충청유교특성화추진단’을 발족시켰고, 충청남도 역사문화의 두 축인 백제문화와 충청유교문화의 선도적인 연구를 선언하였다. 다음 해인 2019년 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지원으로 ‘충청유교문화원 준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경북에 있지만 전국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준비단은 충청유교문화원도 전국적인 홍보와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 결과 2020년도에 충청유교문화원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또, 준비단은 한유진이 개원하기까지 명칭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이 가능한 충청국학진흥사업 국비사업 확보, 충청권 4개 광역시·도 국학자료 수집, 시설콘텐츠 구축을 통한 건립사업 지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4년간 차근차근 준비해나갔다. 그러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산실(産室) 역할을 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업적은 도민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연구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연구원이 충남 역사문화를 밝히는 등대 같은 존재로 함께 하길 바란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식(2022년 10월 1일)

나의 기억을 통해 본 연구원 20년

이경복
연구실장

역사와 문화를 배우다.

나는 ‘연구원’이 꿈이었다. 대학생 당시 막연하게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연구원’이란 직업에 큰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대상을 찾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직업. 대학원생이 되면서 나는 ‘연구원’이 되고자 공부하였다.

1999년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현 충남연구원)에 기간제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되었다. 첫 출근 기억은 강렬했다. 땅속의 역사를 찾는다는 부푼 꿈을 안고 찾은 지금의 백제재현단지 안의 발굴현장, 무엇인가 첨단연구방법을 기대했던 나에게 누군가 삽 하나를 던져주고 삽질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여기 파’란 그 한마디가 연구원과 첫 만남의 기억이었다.

그 참담한 기억은 시간이 흘러 땅속을 찾아 헤매는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고고학이란 분야에 점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경험이다. 그로부터 10여년 동안 지표조사, 발굴조사에 참여하며 땅속의 역사를 배웠다. 그 시간이 나와 연구원의 최고 기억이었다. 내 기억으로 당시 연구원은 땅속의 역사 찾기에 매진하고 있었다. 땅속에 묻혀있던 역사인 공주 수촌리 유적, 서산 부장리 유적, 서천 봉선리 유적 등 충남을 대표하는 백제유적들이 세상에 나왔다. 나는 이 시기 땅속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새로운 역사가 드러나면 역사와 문화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역사와 문화를 지키다

당시 공주 수촌리 유적, 서천 봉선리 유적, 서산 부장리 유적 등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던 부지의 공주 수촌리 유적, 아파트 개발을 하기 위해 발굴했던 서산 부장리 유적, 고속도로를 개설하고자 했던 서천 봉선리 유적 등은 공장, 아파트, 고속도로 등 개발 행위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연구원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겠다는 노력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은 사적 460호, 사적 473호, 사적 475호로 우리 곁에 남게 되었다.

이 당시 나는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영영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억은 우리 연구원의 모토였을 것이다.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자.

충남지역에서 땅속의 문화유산은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충남은 웅진과 사비, 즉 공주와 부여라는 백제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지역이다. 충남은 공산성, 무령왕릉, 부소산성, 정림사지, 공남지 등 백제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제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큰 뜻이 백제 유산은 세계유산이란 인식으로 전환하여 그 노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연구원에서도 총 24권의 『백제문화사대계』를 발행하였다. 당시 이 책은 학계에 큰 호응을 받았다. 그로부터 연구원은 백제문화사대계를 필두로 충남도지 발간 등 지역사 연구에 시동을 걸었다. 내포문화총서, 금강문화총서 등 수많은 지역사 연구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법을 배우자

지난 20년 동안 나는 연구원과 함께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지키고,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에 일어난 연구원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잘 써보려 했지만, 내 기억의 능력이 허락한 것은 이 정도다. 다시 오늘로 돌아왔다. 지금, 이 순간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해 본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나도 연구원과 함께 할 시간이 10년도 안 남았다. 나와 연구원은 지금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변화해 왔다.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 나의 새로운 경험들이 쌓여 왔지만, 이제 남은 시간동안 새로운 경험보다 나는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럼, 연구원도 나와 함께 할까? 나와 달리 연구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더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제 연구원은 자체보다 충남도민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 방향성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도민들이 역사와 문화로 맛보는, 역사와 문화로 읽는, 역사와 문화로 배우는 충남이 된다면, 충청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넘쳐나는 색다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을 전담하는 연구원, 난 상상만 해도 즐겁다. 앞으로 10년, 상상을 실현하는 기간이다. 나도 도민들도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것을 배우는 기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상상해 보자.



초대 정덕기 원장과 함께



연구원 화합행사(2023. 10. 10.)

편찬 후기

박재용·이호경

지난 20년 동안 우리 연구원은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 그리고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작은 책자에 그동안 걸어온 연구원 발자취를 모두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만, 연구원들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새롭게 다진 마음가짐을 많은 분들께 전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늘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의 축하의 말씀과 연구원에 바라는 마음도 담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온 일들이 계속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올해 20주년이 더욱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재 연구실, 역사박물관, 내포문화진흥센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도민의 요구와 도정에 맞춰 여러 차례 조직을 개편해 왔으며, 그에 따라 연구와 사업 방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편 충남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있기에 충남도와 도민의 정체성을 확보·유지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들이 이 책자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충남도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의 연구기관으로서 주어진 일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을 앞장서 찾아 나서겠습니다.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연구원의 각오와 다짐을 이번 '그 발자취와 앞으로의 기대'의 간행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소중한 자료를 정리해 준 우리 연구원들과 흔쾌히 좋은 글을 보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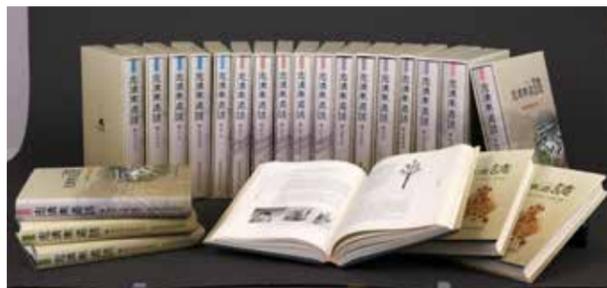
부록

- 발간 도서 20선
- 주요 사업 100선
- 언론보도 및 사회 기여

**발간 도서
20선**

충청남도지 25권 (2006~2010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충청남도의 지리, 역사, 민속, 정치 행정, 산업 경제, 현대문화 등을 총망라한 역사편찬 사업. 총 25권으로 구성



공주 수촌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년)

공주 농공단지 조성 전 실시한 고고학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 백제 한성기 공주지역의 백제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동관모 및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 백제 왕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이 다수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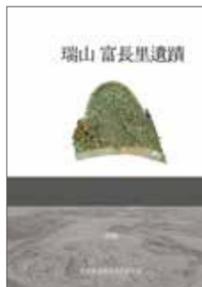
백제문화사대계 15권 (2007~2008년)

백제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백제의 역사와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대중을 위한 문화총서 편찬



서산 부장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8년)

서산 음암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확인된 유적. 백제시대 서산지역의 패자가 묻힌 무덤으로 분구묘라는 독특한 백제시대 묘제와 더불어 백제왕실과의 관계를 짐작케하는 금동관모 등 다수의 유물 출토



연기 대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 중 현 세종시청 부지 주변에서 확인된 유적. 청동기시대 및 원삼국시대 대표적인 주거지 등 생활유적이 밀집된 형태로 확인되어 금강 주변의 고대 문화를 엿볼 수 있었던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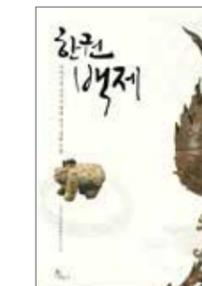
홍성 신경리·예산 목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13년)

충남 도청 조성부지에서 확인된 유적. 대규모 발굴조사를 통해 신석기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유적이 확인됨. 내포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역사의 모든 흔적을 확인할 되었던 유적



한권백제 시리즈 (2013~2014년)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시리즈로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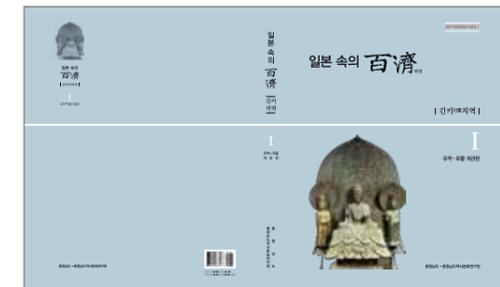
내포문화총서 12권 (2015~2017년)

충남도청의 내포 이전 및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주목받게 된 내포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주제별로 심도있게 풀어낸 대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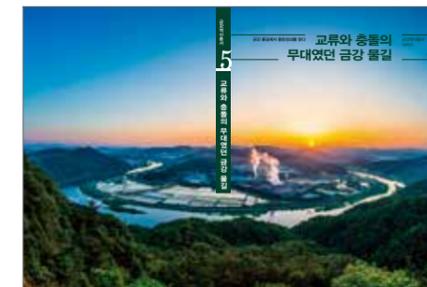
백제 해외문화재 자료집 (2016~2019년)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 남아있는 백제 관련 유적 및 유물의 현황 및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총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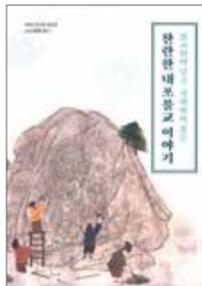
금강역사총서 9권 (2019~2023년)

충남의 문화권은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내포와 금강 주변의 금강문화권으로 구분됨. 금강 분류지역의 서천, 부여, 청양, 논산, 공주, 세종, 금산 등 여러 시군의 문화상을 주제별로 편찬한 대중서



삼교천이 낳고 가야산이 품은 찬란한 내포불교 이야기 (2019년)

가야산-삼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의 첫 번째 스토리텔링 총서로, 고대에서 근대까지 내포불교의 장구한 흐름과 대표 문화유산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는 평가



충남독립운동사 6권 (2020~2022년)

일제강점기 충의 역사를 배출한 충남의 독립운동을 더욱 깊이있게 연구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한 많은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조명하여 역사와 인물, 유적지 등 주제별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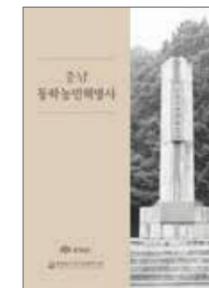
충남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계획 (2019년)

충남 도지정문화재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한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남동학농민혁명사 연구서 및 지역교재 (2022년)

충남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활용도 미흡함에 따라 심도있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9년)

충남 서해안에 있는 33개 유인도서와 주요 항·포구 및 어촌마을 등의 해양문화자원을 전수조사하고, 자료화합은 물론 콘텐츠 개발까지 진행하여 충남의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토대 연구를 구축



내포천주교 신앙의 유산, 공소 (2023년)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포천주교의 신앙의 역사와 천주교인의 삶을 빼어난 문장으로 담백하고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천주교 공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됨



제2금강교 건립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2020년)

백제역사유적지구(공산성)내 제2금강교 건설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영향평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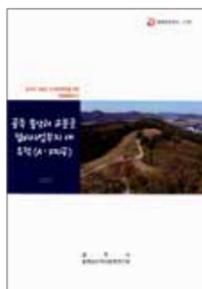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2023년)

충남 도지정문화재 보존현황조사 및 등급부여를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공주 송산리고분군 AD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2020년)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필요한 자료집으로서 공주, 부여, 익산 백제핵심유적 8곳에 대한 그동안의 발굴 및 연구성과 정리



서천 한산읍성 I (2023년)

서천 한산읍성 서북쪽 치성 발굴조사 결과를 담은 발굴조사 보고서로 전국 매장유산 발굴조사 보고서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아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 보고서





- 2003 - 서천 봉선리유적 발굴조사(2003~2018)
- 공주 수촌리고분군 발굴조사(2003~2018)
- 2004 - 충청남도지 편찬사업(2004~2009)
- 충청학과 충청문화 발간사업(2004~현재)
- 2005 - 비지정동산문화재 실태조사사업(2005~2007)
- 금산 백령성 발굴조사(2005~2024)
- 서산 해미읍성 발굴조사(2005~2024)
- 2006 - 논산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상설전시)
- 공주 장선리유적 발굴조사
- 서산 부장리고분군 발굴조사
- 태안 안흥진성 발굴조사(2006~2023)
- 2007 -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 <亂中에 亂을 만나다: 임진왜란기 내란을 평정한 청난공신>
- 2008 - 기독교 성지순례코스개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백제문화사대계 역주집 편찬(한국, 일본, 중국)
<63년만의 귀향,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유물 특별전>
- 홍성 홍주읍성(북문지·서문지·성벽구간) 발굴조사(2008~2024)
- 2009 - 디지털 향토문화전자대전 - 공주, 논산, 천안(2009~2011)
- 아산 밖지므레유적 발굴조사
- 2010 - 세계대백제전 국제학술회의 개최
-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기념 특별전 <부보상 다시 길을 나서다>
- 연기 대평리 유적 발굴조사(세종신도시 건설)
- 천안 성거산 위례성 발굴조사(2010~2018)
- 2011 - 삼국문화교류전 개최를 위한 타당성 연구 사업
-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명재 윤증, 백의로 조선을 경영하다>
- 2012 - 공주 근대건축유산 조사용역
- 충청남도의회 60년사 편찬
- 제60회 백제문화제 기본 및 종합실행계획
- 2013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고문서·고사진·유물자료집 발간
- 가야산 주변 문화유적 종합정비 및 개발용역
- 노강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학술용역

- 공주 고마나루 웅진단 발굴조사
- 홍성 신경리·예산 목리유적 발굴조사(도청이전신도시)
- 2014 - 한중일 문화교류전, 삼국문화 교류전
- 자암 김구 선생 탄신 526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
- 도청이전 기념 순회사진전 <사진으로 본 충남 80년>
- 충청남도 옛 도지사실 기획특별전 <충남의 문화유산, 서원을 만나다>
- 충남 문화유산 발굴 및 정리사업(콘텐츠 구축사업 2014~2016)
- 내포문화원형 발굴 및 기록화 사업(2014~2018)
-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 2015 - 개관 9주년 기념 <천하동례(天下同禮), 예로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 활용 계획수립 사업
- 2016 - 근현대 구술채록사업(2016~2023)
- 개관 10주년 특별전 <충청유학, 미래를 청(淸)치다>
- 서산 해미읍성 정밀실측 및 구조안전진단사업(4차)
- 2017 - 백제 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사업
- 충남 여성리더 인물사전 발간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5개년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 서천 서천읍성 발굴조사(2017~2023)
- 2018 - 웅진백제역사관 전시시설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2018~2020)
- 공주 송산리고분군 정비사업부지내 유적(A·D지구) 발굴조사
- 청소년을 위한 역사교재 발간(충남, 태안, 서천, 홍성, 금산)
- 공주 고도지구 가로경관 개선방안 연구용역
- 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 충남 해양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
- 충남 3.1운동 관련 기록화 및 스토리 발굴사업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성과기념전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새로운 빛을 밝히다>
- 2019 -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등재 심화연구
- 개원 15주년 기념 특별전 <우리가 찾은 역사, 땅 속 이야기>
-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2019~현재)
- 공산성역사관 조성사업(2019~2020)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4주년 기념 <무령왕릉 사진전>
- 정지산 유적 학술고증 연구
- 공주목 복원정비계획
- 서산 명종대왕태실 및 비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 2020
 -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 충남의 문화유산 기획전 <조선시대 마지막 통신사 죽리 김이교>
 - 충청남도 태실문화재 실태 연구용역
 - 충남 민주화운동사 기록화사업
 - 공주시 도지정문화재 현황측량 및 구역재설정 연구
 -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불교유산)
 - 2020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 충남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 충남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사업
 - 공주시-대통령기록관 공동협력 특별전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 백제, 그 흔적을 잇다>
- 2021
 - 충남독립운동사 편찬사업(2021~2023)
 - 공주 독립운동기념관 전시연출사업
 - 랜선 충청유교 특별전 <충청유학, 미래를 淸치다>
 - 태안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 명사와 함께하는 내포역사문화투어
 - 충남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적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아산 외암마을 소장유물 기록화 사업
 - 보령시 문화재 지정자료 작성 용역
- 2022
 - 태안 안흥진성 정밀기록화사업(2차)
 -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순회 사진전 <조선통신사, 사진으로 만나다>
 -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3차 유산 영향 평가
 - 공주 정지산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22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천주교유산)
 - 충남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사업
 - 서천 마량리 당제 미래 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
- 2023
 - 충남 기독교유산 현황 조사 사업
 - 2023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워크숍
 - 태안 태안읍성 남측성벽 발굴조사
 -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전통 장사-오일장)
 - 충남 벗가릿대세우기 가치 발굴 및 전승기반 구축사업
 -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순회 사진전 <조선통신사, 사진으로 만나다>
 - 충청남도-일본 시즈오카 우호교류협정 10주년 기념 충청남도 문화유산 해외 특별전 <성신 교린의 재발견>

**언론보도
및
사회 기여**



충남역사박물관 내달 31일까지 '부보상 특별전'

입력 2016. 9. 16. 17:08 | 수정 2016. 9. 16. 17:48



가을밤 돈암서원에 그윽한 '유학 향기'

입력 2015. 9. 22. 22:20 | 수정 2015. 9. 22. 2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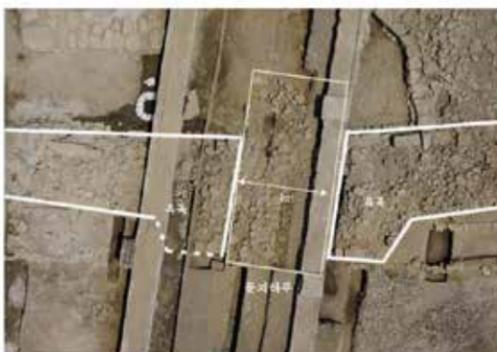
백제시대 최대 규모 제사관련 목곽고, 서천서 발굴

입력 2016. 8. 12. 16:00



조선 초기 개축된 홍성 홍주읍성 복문지 원형 확인

입력 2012. 6. 27. 12:18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뉴세마을운동 실천

보도일: 입력 2012. 6. 16. 14:03 | 수정 2012. 6. 16. 18:03



【대전=뉴스1】유효성 기자 = 충남도 역사문화연구원(원장 변병호)은 15일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신수막 마을과 뉴세마을운동 지역결연을 맺고 월 1회씩 정기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43명 도지사 거쳐간 옛 '충남도청 지사실', 역사관으로

보도일: 입력 2013. 8. 29. 09:03 | 수정 2013. 8. 29. 09:03



충남도, 정권교과 정무실 원형 보존..10월초 역대도지사 초청 개관식, 도지사 유물과 자료 전시 계획

무령왕릉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30년 만에 발굴

입력 2016. 1. 29. 06:40 | 수정 2016. 1. 29. 08:46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조사..역사 유구·무고 위치 규명 목적

충남도, 충청유교문화원 건설 '첫 삽'

보도일: 입력 2016. 6. 16. 11:45



충남도, 추사고택서 '기호유학' 특강·공연

보도일: 입력 2014. 6. 6. 19:47 | 수정 2014. 6. 6. 19:47



【충남=뉴스1】유효성 기자 = "기호유학의 진수 추사고택서 즐기세요" 충남도는 올해 기호유학 인문대교 세 번째 행사로 23일 예산 추사고택에서 '추사의 삶'을 주제로 한 특강과 국악·재즈 공연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호유학 인문대교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기호유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충남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사업이다.

올해 세 번째 인문대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예산 추사고택에서 추사 김정희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증·기탁자 초청행사

보도일: 입력 2016. 4. 12. 11:11 | 수정 2016. 4. 12. 11:11



옛되고 다부진 '13세' 유관순 열사 추정 사진 공개

입력 2016. 10. 26. 10:11



유관순 열사가 13세 때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왼쪽) 사진 중 일화. (사단-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공)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 '돈암서원 소장 목판' 기탁받아

예산 홍성=대전CBS 김희영 기자 | 입력 2017. 7. 27. 16:00





중남역사문화연구원

그 발자취와 앞으로의 기대

발행처  중남역사문화연구원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발행일 2024년 4월 1일

발행인 김낙중

기획 박재용·이호경

편집·디자인 수타종합인쇄광고

인쇄 수타종합인쇄광고

이 책의 저작권은 중남역사문화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는 중남역사문화연구원의 허가 없이는 복제 및 전재를 절대 금합니다.

